

보도자료
본 자료는 11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20일(월)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거시경제] 동향·통계분석본부 박성근 연구위원 (044) 287-3172
[13대 주력산업]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이재윤 연구위원 (044) 287-3829

2024년 경제·산업 전망*

2023. 11.



* 본 내용은 산업연구원 고유의 견해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차례

요 약	9
제1장 거시경제 전망	21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21
2. 대외 여건 전망	24
3. 2024년 국내경제 전망	33
〈참고〉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50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59
1. 2023년 동향 및 진단	59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67
3. 2024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76
〈참고〉 글로벌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동향과 전망	98

표 차례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추이와 전망	25
〈표 1-2〉 세계 주요 권역 및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26
〈표 1-3〉 국제유가 현황	30
〈표 1-4〉 2024년 국제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31
〈표 1-5〉 2024년 원/달러 환율 전망	33
〈표 1-6〉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34
〈표 1-7〉 민간소비 추이	35
〈표 1-8〉 민간소비 전망	37
〈표 1-9〉 설비투자 추이	38
〈표 1-10〉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39
〈표 1-11〉 설비투자 조정압력 추이	40
〈표 1-12〉 설비투자 전망	41
〈표 1-13〉 건설투자 추이	42
〈표 1-14〉 건설투자 전망	44
〈표 1-15〉 산업별 수출 증가율	47
〈표 1-16〉 가공단계별 수입	48
〈표 1-17〉 2024년 수출입 전망	49
〈표 2-1〉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67
〈표 2-2〉 2024년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	70
〈표 2-3〉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71
〈표 2-4〉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72
〈표 2-5〉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74
〈표 2-6〉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79
〈표 2-7〉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83
〈표 2-8〉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86
〈표 2-9〉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90
〈표 2-10〉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92

〈표 2-11〉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93
〈표 2-12〉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94
〈표 2-13〉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95
〈표 2-14〉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96
〈표 2-15〉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97

그림 차례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22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23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23
〈그림 1-4〉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24
〈그림 1-5〉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26
〈그림 1-6〉 세계 주요국별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27
〈그림 1-7〉 세계 주요국별 소비자물가 및 근원 소비자물가 변화율 추이(분기 통계)	28
〈그림 1-8〉 IHS Markit의 글로벌 제조업 PMI와 G20 경기선행지수 추이	29
〈그림 1-9〉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PMI(2022년 12월과 2023년 10월 현재)	29
〈그림 1-10〉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PMI(2022년 12월과 2023년 10월 현재)	29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31
〈그림 1-12〉 원/달러, 달러인덱스 추이	32
〈그림 1-13〉 재화별 소비 추이(전년동기비)	36
〈그림 1-14〉 민간소비와 실질GNI(전년동기비)	36
〈그림 1-15〉 취업자 추이	36
〈그림 1-16〉 고용률 추이(10월)	36
〈그림 1-17〉 소비자 심리지수	37
〈그림 1-18〉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37
〈그림 1-19〉 설비투자 추이	39
〈그림 1-20〉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40
〈그림 1-21〉 재고율과 자본재수입	41
〈그림 1-22〉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43
〈그림 1-23〉 건물건설 인허가·착공 추이	43
〈그림 1-24〉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44
〈그림 1-25〉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45
〈그림 1-26〉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46
〈그림 1-27〉 지역별 수출 증가율	46

〈그림 1-28〉 수입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48
〈그림 2-1〉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추정	59
〈그림 2-2〉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추정	62
〈그림 2-3〉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추정	64
〈그림 2-4〉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추정	66
〈그림 2-5〉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76
〈그림 2-6〉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81
〈그림 2-7〉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85
〈그림 2-8〉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88

요약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내수 성장세 둔화, 수출 부진 완화,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는 제약요인

- 국내 실물경기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 성장세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물경기의 둔화세는 완화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확대
 - 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 설비투자는 고금리로 인해 높아진 조달 비용이 신규 투자를 제약하고 2022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부진,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
 -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수급이 개선되고 가격 상승세도 축소되면서 건물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선행지표인 건물건설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은 부진
 - 수출(통관기준)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하반기 들어 완화되고, 수입이 수출보다 큰 감소폭을 보이며 하반기 들어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

□ (전제) 2024년 세계경제: 높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제한적 성장 지속, 세계교역은 반등

-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탈세계화 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으로 주요국들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 세계교역은 2023년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 전망(IMF)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22			2023			IMF		OECD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2023	2024	2023	2024
전 세계			3.5				3.0	2.9	3.0	2.7
선진권	3.5	1.7	2.6	1.5	1.5	-	1.5	1.4	-	-
미국	2.7	1.2	1.9	1.7 (2.2)	2.4 (2.1)	2.9 (4.9)	2.1	1.5	2.2	1.3
신흥권	3.9	3.3	3.6	3.4	4.9	-	4.0	4.0	-	-
중국	2.6	3.4	3.0	4.5	6.3	4.9	5.0	4.2	5.1	4.6
세계교역(재화)			3.4				-0.3	3.2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 10월);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2022. 9월); World Bank GEM Database.

주: 1) 전 세계는 PPP환율을 적용 기준.

□ (전제) 2024년 유가 및 환율: 유가 83달러 내외, 환율 1,280원 내외 전망

○ 국제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에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2024년 국제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79.1 (-22.4)	87.7 (-3.6)	83.4 (-13.5)	84.8 (7.3)	81.2 (-7.4)	83.0 (-0.5)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3년 하반기는 11월 7일 현재 기준.

○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국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2024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295.3 (5.1)	1,324.2 (-1.9)	1,309.8 (1.4)	1,301.7 (0.5)	1,275.0 (-3.7)	1,288.3 (-1.6)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3년 하반기는 11월 7일 현재 기준.

□ 2024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을 2.0% 전망

- 2024년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른 소비 성장세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전년 대비 2.0% 수준의 완만한 성장 예상
 -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주요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6	0.9	1.6	1.3	2.2	1.9	2.0
민간소비	4.1	3.1	0.9	2.0	1.6	2.2	1.9
설비투자	-0.9	5.3	-6.0	-0.6	-1.5	5.9	2.1
건설투자	-2.8	1.8	2.5	2.2	1.2	-1.4	-0.2
통관 수출	6,836 (6.1)	3,071 (-12.4)	3,247 (-2.5)	6,318 (-7.6)	3,248 (5.8)	3,423 (5.4)	6,671 (5.6)
통관 수입	7,314 (18.9)	3,333 (-7.8)	3,120 (-15.7)	6,454 (-11.8)	3,162 (-5.1)	3,244 (4.0)	6,406 (-0.7)
무역수지	-478	-262	126	-136	86	179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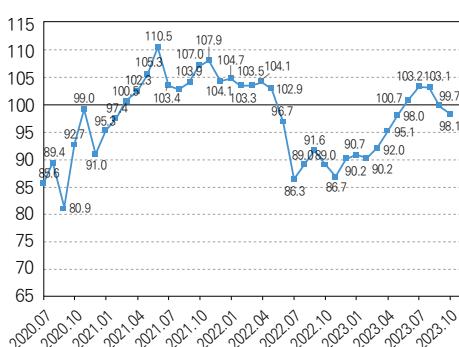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산업연구원 전망치.

□ 2024년 민간소비: 전년 대비 1.9%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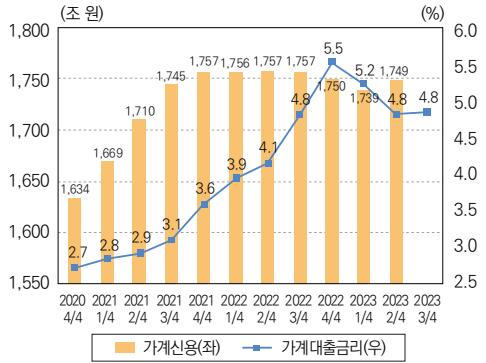
-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부담 확대, 금융 부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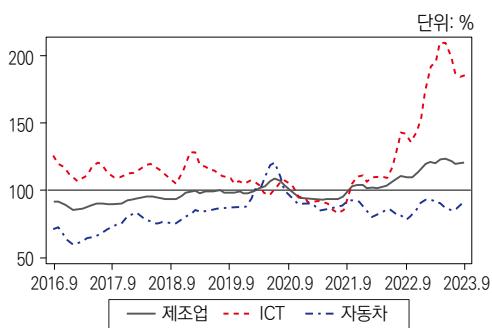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4년 투자: 설비투자 2.1% 증가, 건설투자 0.2% 감소 전망

- 설비투자는 친환경 차량의 견조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업종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완만한 회복과 관련 주요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 집행,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과 토목건설 수주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신규 인허가 및 착공, 건설 수주액 등의 선행지표들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올해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재고율과 BSI

(a) 주요 업종별 재고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2) 재고율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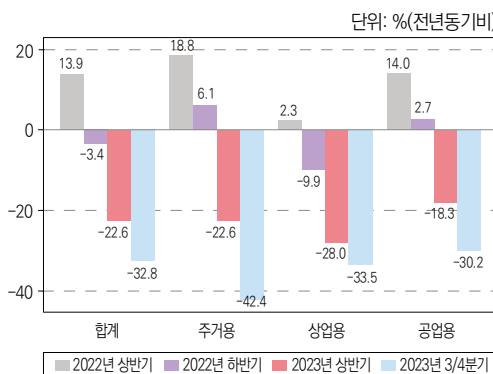
3)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b) 설비투자 BSI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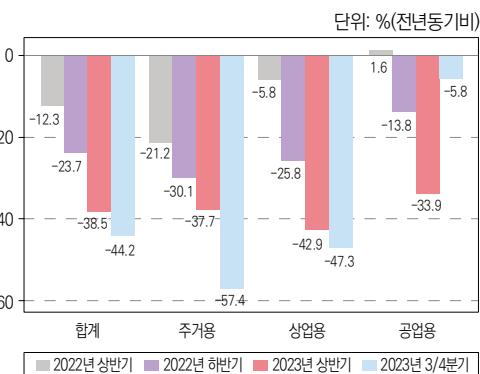


건물건설 인허가·착공 추이

(a) 건물건설 허가 면적



(b) 건물건설 착공 면적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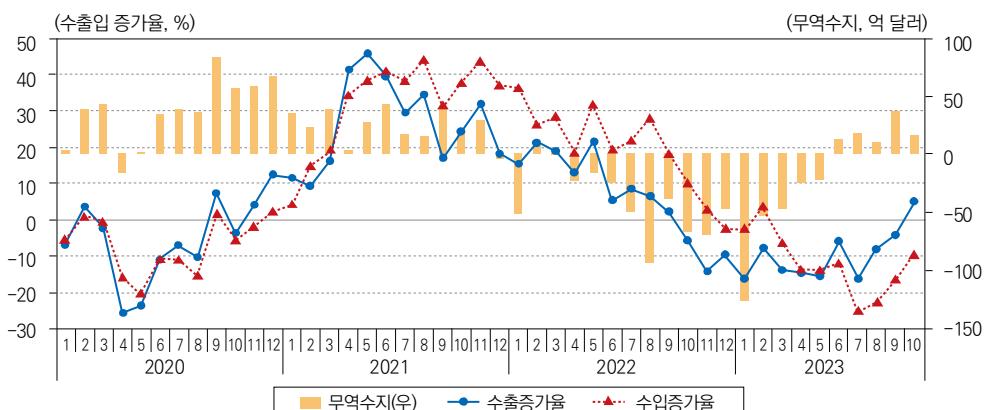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형 이동평균.

□ 2024년 수출입 전망: 수출은 5.6% 증가, 수입은 0.7% 감소, 무역수지 265억 달러흑자 전망

○ 2024년 수출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견조한 수출 규모 유지,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예상

- 수입은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유가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0.7% 감소가 예상되며,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연간 265억 달러 수준의 흑자 예상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수출: 기계산업군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소재 및 IT 신산업군 수출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 2023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팬데믹 특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 예상
 - 단, 하반기에는 IT 수요 확대와 단가 안정화 영향으로 일부 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수출의 감소세가 둔화(-4.8%)
 - (기계산업군) 글로벌 수요 호조 및 공급망 정상화로 수출이 큰 폭 확대된 자동차(19.2%) 산업과 풍부한 수주잔량,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조선(16.1%)과 기계산업(3.1%)의 수출 증가로 2022년 대비 13.2% 증가
 - (소재산업군) 주요 수출국 수요 부진과 단가 하락 및 2022년 급등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2% 감소 전망
 - (IT신산업군) 팬데믹 특수 종료에 따른 역기저효과 및 IT제품 소비 둔화로 특히 상반기 수출이 급감, 반도체(-25.6%), 정보통신기기(-30.6%), 바이오헬스(-27.6%) 등 대다수 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산업군 전체로는 수출이 전년 대비 23.5% 감소 예상
- 내수: 국내 경기와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상반기의 증가세가 하반기 감소세로 전환
- 자동차, 섬유, 정보통신기기, 신산업군의 상반기 내수 증가 추세가 하반기 들어 둔화하거나 감소세로 전환
 - (기계산업군) 자동차(1.6%)와 조선(21.6%)은 국내 판매 실적 호조로 증가한 반면 일반기계(-12.1%)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감소
 - (소재산업군) 자동차 및 조선 산업의 호조와 야외활동 증가 영향으로 철강(3.4%)과 섬유

(2.1%)는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4.5%)과 정유(-0.2%)는 반도체 등 수요산업의 둔화 영향으로 감소

- (IT신산업군) 반도체(-10.6%), 가전(-4.3%), 디스플레이(-19.1%)는 IT제품 시장 위축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은 신제품 출시와 주요 제품의 국내 시장 확대로 증가

□ 생산: IT산업 수출 부진, 공급차질 요인 발생으로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의 생산이 부진

- (기계산업군) 자동차(9.9%) 생산은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조선(18.3%)은 증가하였으나 생산능력 한계로 예상치 하회, 일반기계(-6.8%)는 비중이 큰 내수 부진으로 감소

- (소재산업군) 철강(3.2%)은 생산 정상화로 증가, 정유(-1.4%)와 석유화학(-2.7%)은 수요 둔화 및 정기 보수 영향으로 감소

- (IT신산업군)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생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반도체(-27%), 정보통신기기(-7.6%) 등의 IT산업은 수출 부진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 예상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대외 여건 변화: 세계 IT 시장의 성장, 디지털 전환·친환경화 추세는 수요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나 거시 불확실성이 성장세를 제약

○ (세계 수요 여건) 2023년 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가 2024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전환·친환경화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투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 긴축기조와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수요 회복을 제약

-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고 주요 제품의 교체수요로 글로벌 ICT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 소재 시장은 친환경·프리미엄제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혁신신약 효과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수요도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 완성차는 대기수요가 축적되어 있으나 전기차는 보조금 축소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4년 13대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는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 내재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경우 경기 하방압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할 전망
- (해외 생산 전망) 2024년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은 산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세계 수요 대응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 제외 대부분 국가에서 확대될 전망

□ 국내 여건 변화: 민간 소비는 부정적이나 투자수요 회복, 산업전환 추세 등 긍정적 여건 존재

- (국내 수요 여건) 고금리-고물가 등의 민간 소비심리 위축 요인이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가전, 섬유의류 등의 최종재 수요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
 - 단,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증가, 친환경·고기능성 제품 선호 추세는 내수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
- (공급능력 여건)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화학,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의 공급 능력 증가가 예상되며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 대응 및 시장점유율 강화 목적의 조선, 철강, 섬유, 반도체 분야의 투자 증가가 예상

3. 2024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글로벌 ICT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이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 전망
- 2024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 경제의 제한적 성장 속에서도 석유화학(-0.5%), 이차전지(-2.6%)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의 수출이 확대되어 2023년(-10.5%)보다 5.2% 증가한 5,047억 달러 기록 전망
 - 13대 주력산업 수출액: (2022) 5,365억 달러 → (2023) 4,799억 달러 → (2024) 5,047억 달러
 - (기계산업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확대로 일반기계(1.0%)와 자동차(2.0%)의 수출 증가세 지속, 조선(10.2%)은 고가 선박의 인도 증가로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2.7%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수요 증가, 첨단소재 수출 확대 및 기저효과로 철강(1.4%), 섬유(2.0%) 및 정유(1.0%)의 수출 증가 예상, 석유화학(-0.5%)의 경우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횡보세가 나타나 산업군 전체로는 0.7% 증가 전망
- (IT신산업군) 글로벌 IT 제품 및 혁신의약품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로 반도체(15.9%), 정보통신기기(12.7%), 바이오헬스(4.6%) 등 주요 산업의 수출 증가가 예상, 산업군 전체로는 11.4% 증가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 확대를 견인하나 이차전지는 소폭 감소(-2.6%) 전망

□ **내수: ICT 신제품 출시와 수출용 중간재 수요 증가로 IT신산업군의 내수 회복 전망, 소재산업군은 하반기 경제지표 개선으로 소폭 성장 예상**

-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섬유는 상반기 감소에서 하반기 증가로 전환, IT산업군은 하반기 내수 증가폭 확대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84%)은 큰 폭 증가세 유지, 일반기계(-3.4%)는 설비투자 증가로 감소세가 둔화되나 자동차(-2.0%)는 누적된 이연 수요 실현 및 구매여건 악화로 감소 전환
 - (소재산업군) 하반기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철강(0.6%), 정유(1.5%), 석유화학(1%)에서 내수 성장이 예상, 단,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민간소비 위축세로 제한적 증가 전망
 - (IT신산업군) 반도체(9.4%), 정보통신기기(5.4%)의 내수가 회복되고 바이오헬스(10.7%)의 고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이차전지(3.3%)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년(68.8%)에 비해 소폭의 증가율 기록 전망

□ **생산: 수출과 내수의 회복으로 IT신산업군의 생산 확대 기대, 소재산업군은 제한적 증가, 기계산업군은 소폭 감소 예상**

- (기계산업군)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자동차(-2.3%)는 감소 전망, 일반기계(-1.1%) 생산은 국내 수요 회복으로 감소폭 둔화, 조선(7.9%)은 수주잔량 물량 인도에 따라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수요 여건 개선과 가동률 정상화로 철강(0.9%), 정유(1.8%), 석유화학(0.6%)에서 소폭 증가 예상, 섬유(-1.4%)는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감소 전망

- (IT신산업군) 국내외 IT 수요 회복으로 정보통신기기(7.2%), 반도체(17.5%), 디스플레이(3.6%), 바이오헬스(4.6%)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 가전(-0.7%)은 감소하고 수출용 배터리 생산 감소로 이차전지(1.1%)는 소폭 증가 기록 예상

□ 수입: 내수 회복이 예상되는 IT신산업군의 수입 확대로 전년 대비 5.8%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조선은 해외 기자재 수입으로 증가, 자동차는 고급차 수요 확대로 증가하나 수입 규모가 큰 일반기계의 감소추세 지속으로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1.3%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입과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로 정유와 섬유 수입 증가 전망, 석유화학과 철강은 2023년과 비슷할 전망
- (IT신산업군) 국내 ICT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내수 확대,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국내 수출용 중간재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4% 증가 예상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기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제1장

거시경제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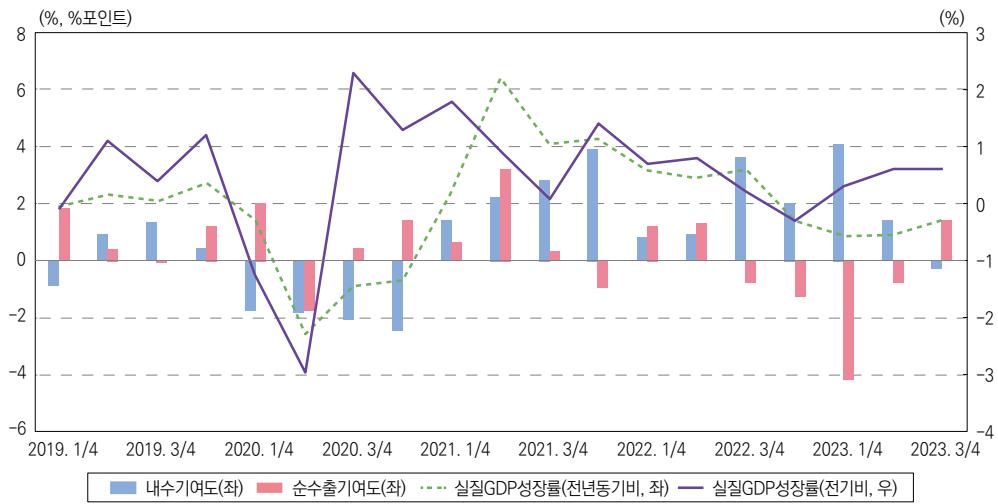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현 경기 판단: 내수 성장세 둔화, 수출 부진 완화

○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실물경기의 둔화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고금리의 지속과 전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은 확대

- 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 설비투자는 고금리로 인해 높아진 조달 비용이 신규 투자를 제약하고 2022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부진,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
-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수급이 개선되고 가격 상승세도 축소되면서 건물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선행지표인 건물건설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은 부진
- 수출(통관기준)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하반기 들어 완화되고, 수입이 수출보다 큰 감소폭을 보이며 하반기 들어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
 - GDP(전기비, %): (2022. 4/4) -0.3 → (2023. 1/4) 0.3 → (2/4) 0.6 → (3/4) 0.6
 - GDP(전년동기비, 이하 동일, %): (2022. 4/4) 1.4 → (2023. 1/4) 0.9 → (2/4) 0.9 → (3/4) 1.4
 - 민간소비(%): (2022. 4/4) 3.3 → (2023. 1/4) 4.6 → (2/4) 1.6 → (3/4) 0.3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설비투자(%): (2022. 4/4) 6.5 → (2023. 1/4) 5.9 → (2/4) 4.7 → (3/4) -4.7
- 건설투자(%): (2022. 4/4) -1.8 → (2023. 1/4) 1.9 → (2/4) 1.7 → (3/4) 4.0
- 통관수출(%): (2022. 4/4) -10.0 → (2023. 1/4) -12.7 → (2/4) -12.0 → (3/4) -9.7
- 무역수지(억 달러): (2022. 4/4) -186 → (2023. 1/4) -227 → (2/4) -35 → (3/4) 66

○ (산업활동 동향)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는 축소되었지만, 광공업 생산은 상승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고,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상반된 방향의 움직임 시현

- 2023년 3분기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전년동월비 4.7%)가 4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자동차(4.7%)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감소폭이 축소(2분기 -7.8% → 3분기 -2.1%)되고, 서비스업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전년도의 기저효과로 증가세는 축소(1.9%)
- 경기지표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100 이하를 기록 중인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경기는 부진하지만 향후 개선될 가능성 시사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자료: 통계청.

〈그림 1-3〉 경기증합지수 추이

단위: 2020=10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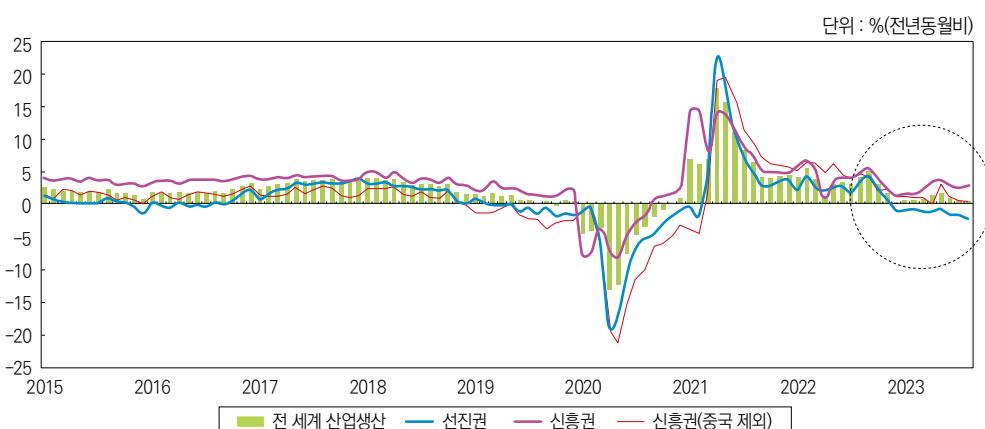
2. 대외 여건 전망

(1) 세계경제

□ 2023년 동향: 선진권·신흥권 간 불균등한 성장세

- 2023년 세계 실물경기는 선진권 중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본과 유로존은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신흥권은 약한 반등세가 나타나는 등 국가 간 불균등한 모습
 - 선진권에서는 미국이 고용시장 호조와 소비 증가세 등에 힘입어 연간 2%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일본과 유로존은 내수 약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성장세
 - 신흥권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이후에 내수 반등에 힘입어 연간 5%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브라질(2023년 상반기 연 3%대 성장률)과 인도(6%대 성장률) 등지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는 약한 반등세를 시현
 - 전 세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2년) 3.1% (2023년 상반기) 0.8% (2023년 7~8월) 0.5%
 - 선진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2년) 2.3% (2023년 상반기) -1.0% (2023년 7~8월) -1.9%
 - 신흥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2년) 3.9% (2023년 상반기) 2.5% (2023년 7~8월) 2.6%

〈그림 1-4〉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24년 전망: 높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제한적 성장 지속, 세계교역은 반등

○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탈세계화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주요국들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인플레이션 안정화 이전까지는 정책당국의 경제활성화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매우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세계교역은 2023년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정 정도의 반등을 전망(IMF)

- 미국경제는 코로나 지원 대책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의 확대와 서비스 고용 수요 등이 지속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더딘 인플레이션(美联储)의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이로 인한 수요 억제가 본격화되면서 성장률 하락이 예상
- 일본경제는 내수 약화 속에서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전환과 기시다 정부의 감세 정책 등 영향력에 따라 성장 둔화 정도가 좌우될 전망이고, 유로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가 내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역내 성장의 둔화세가 예상
- 중국경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서방 국가들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외수 약세로 인해 대내외 성장 여건이 약화되어 있는 데다, 구조적으로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잠재성장 여력의 하락세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의 하락이 예상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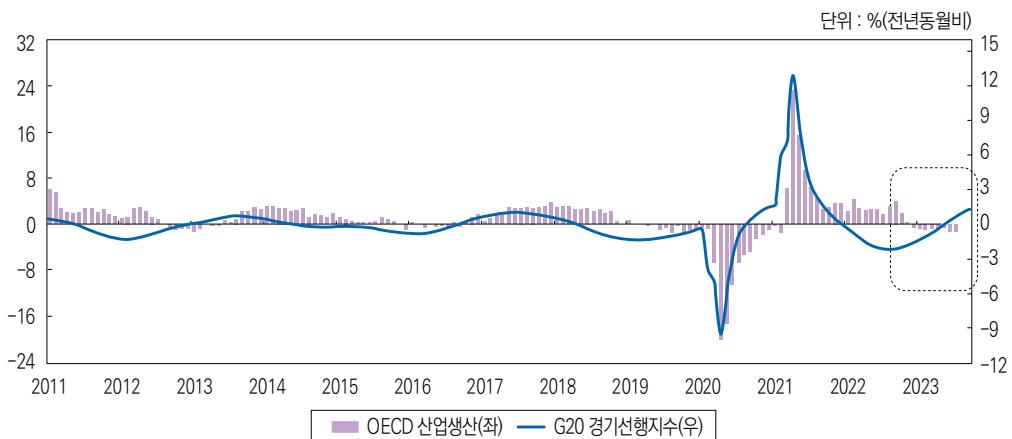
	2022			2023			IMF		OECD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2023	2024	2023	2024
전 세계			3.5				3.0	2.9	3.0	2.7
선진권	3.5	1.7	2.6	1.5	1.5	-	1.5	1.4	-	-
미국	2.7	1.2	1.9	1.7 (2.2)	2.4 (2.1)	2.9 (4.9)	2.1	1.5	2.2	1.3
유로존	4.8	2.1	3.4	1.2	0.5	0.1	0.7	1.2	0.6	1.1
일본	1.0	0.9	0.9	2.0	1.7	1.2	2.0	1.0	1.8	1.0
신흥권	3.9	3.3	3.6	3.4	4.9	-	4.0	4.0	-	-
중국	2.6	3.4	3.0	4.5	6.3	4.9	5.0	4.2	5.1	4.6
세계교역(재화)			3.4				-0.3	3.2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 10월);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2022. 9월); World Bank GEM Database.

주: 1) 전 세계는 PPP 환율 적용 기준.

2) 선진권과 신흥권의 반기별 및 분기별 수치는 세계은행 추산 기준.

〈그림 1-5〉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자료: OECD.

〈표 1-2〉 세계 주요 권역 및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경기선행지수 ¹⁾ (장기추세=100)						3개월 전(前) 대비 변화율 ⁴⁾ (%)						전년 동월비	
	2022			2023			2022			2023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G20개국	99.38	98.92	98.95	99.34	99.78	100.17	▲0.67	▲0.46	0.03	0.40	0.44	0.39	1.27	
G7(선진권)	99.66	98.97	98.83	99.00	99.20	99.39	▲0.98	▲0.69	▲0.13	0.17	0.20	0.20	0.43	
유럽 4개국 ²⁾	99.06	98.19	98.45	99.04	99.20	99.22	▲1.51	▲0.87	0.26	0.60	0.17	0.02	1.05	
아시아 5개국 ³⁾	98.98	98.75	98.93	99.56	100.27	100.91	▲0.34	▲0.24	0.18	0.64	0.71	0.64	2.19	
미국	99.06	98.19	98.45	99.04	99.20	99.22	▲1.51	▲0.87	0.26	0.60	0.17	0.02	0.00	
독일	100.11	99.13	99.22	99.66	99.36	98.91	▲1.18	▲0.98	0.09	0.45	▲0.30	▲0.46	▲0.22	
프랑스	99.68	99.10	98.80	98.63	98.57	98.58	▲0.98	▲0.58	▲0.30	▲0.18	▲0.06	0.02	▲0.52	
영국	99.79	99.16	98.87	98.85	99.10	99.43	▲0.82	▲0.62	▲0.29	▲0.02	0.25	0.33	0.27	
일본	100.41	100.17	99.95	100.03	100.17	100.27	▲0.11	▲0.24	▲0.22	0.08	0.14	0.10	0.10	
브라질	100.50	100.26	99.70	99.51	99.86	100.09	▲0.25	▲0.24	▲0.55	▲0.20	0.35	0.23	▲0.17	
중국	97.98	97.88	98.52	99.72	100.88	101.96	▲0.47	▲0.11	0.66	1.21	1.17	1.06	4.17	
인도	100.24	99.90	99.62	99.51	99.59	99.70	▲0.29	▲0.34	▲0.27	▲0.11	0.08	0.10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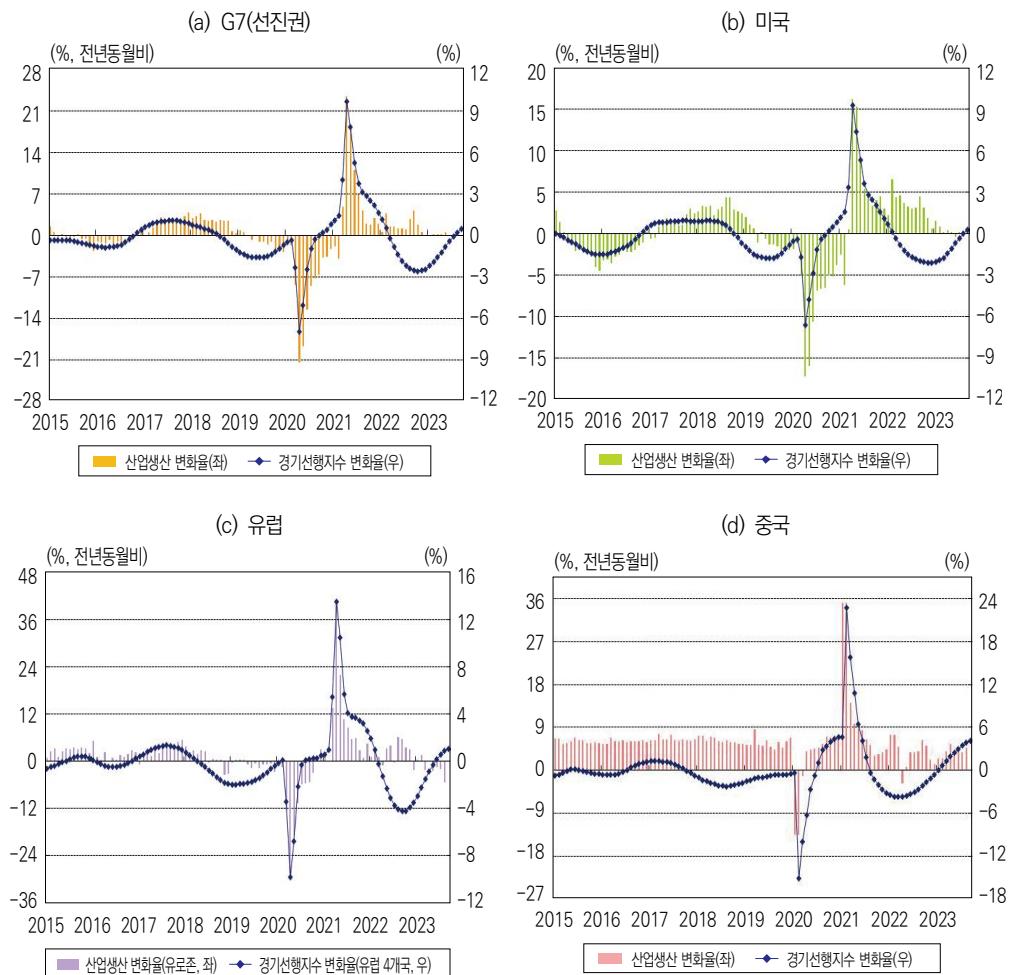
자료: OECD.

주: 1)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확장(또는 수축), 100 미만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회복(또는 하강)을 의미.

2)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3)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4) ▲는 마이너스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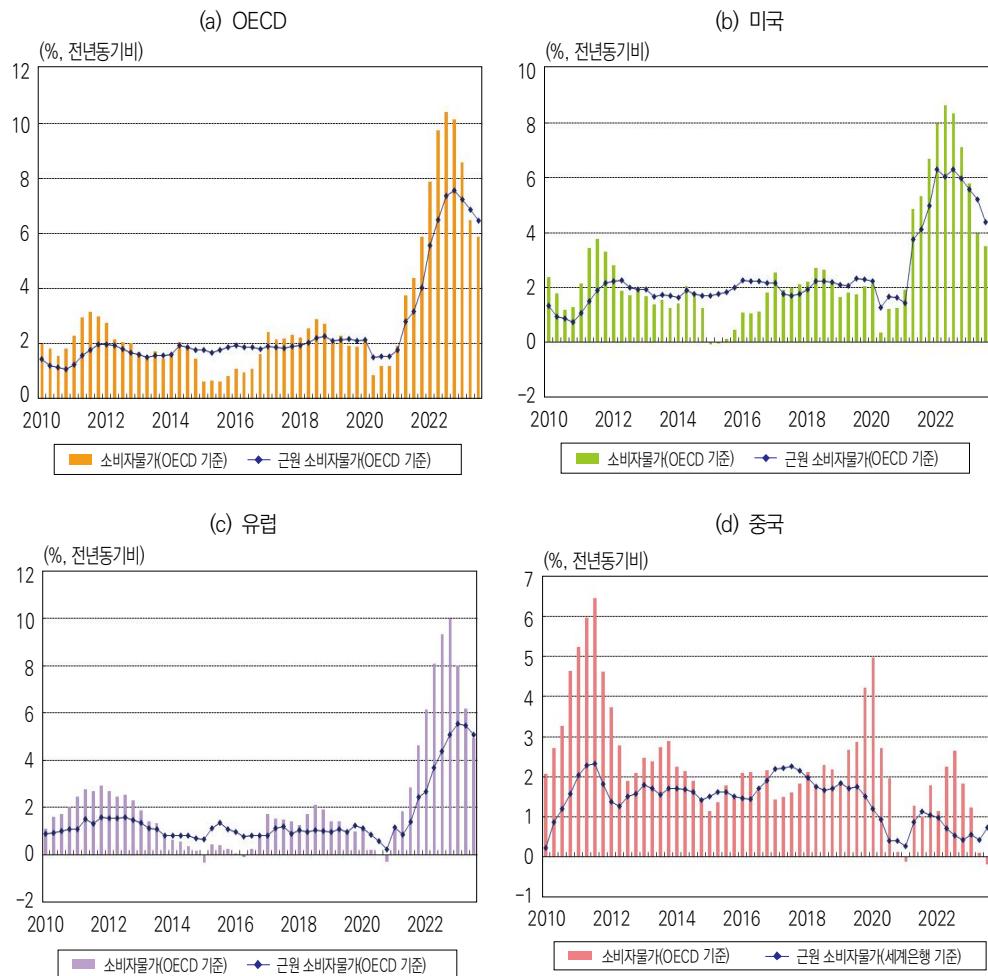
-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로는 이스라엘-하마스 교전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전개 양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장 주목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인플레 안정화 여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억제 정도, 주요국들의 정치 이벤트(미국 대선 등) 결과 및 국가 간 대립 완화 여부 등이 관심사로 부상

〈그림 1-6〉 세계 주요국별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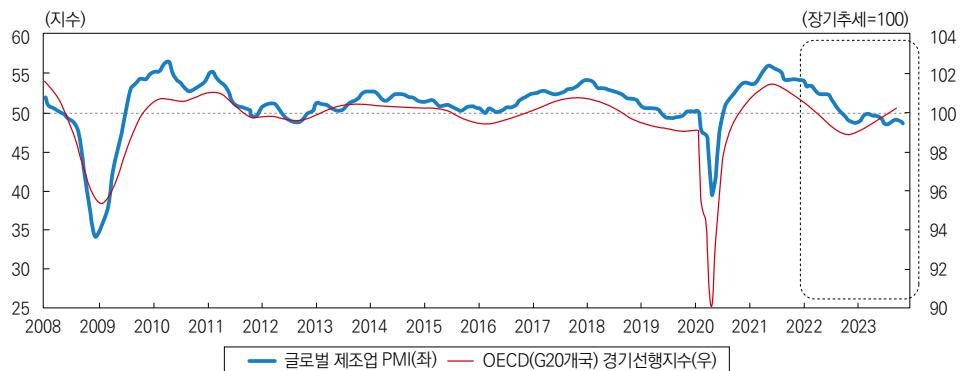
자료: OECD.

〈그림 1-7〉 세계 주요국별 소비자물가 및 균원 소비자물가 변화율 추이(분기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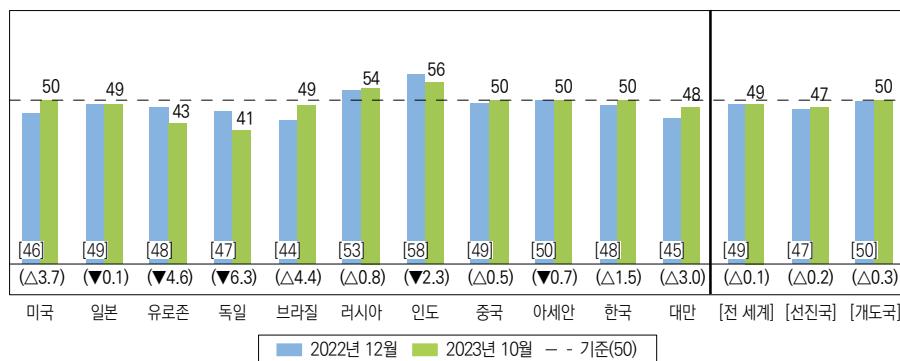
자료: OECD; World Bank.

〈그림 1-8〉 IHS Markit의 글로벌 제조업 PMI와 G20 경기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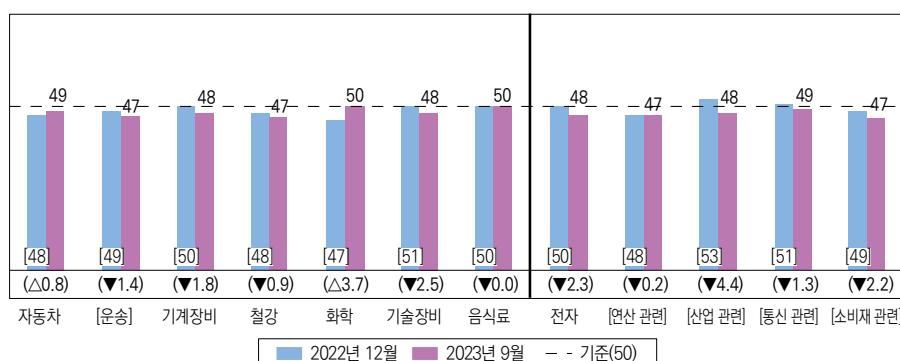
자료: IHS Markit; OECD.

〈그림 1-9〉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PMI(2022년 12월과 2023년 10월 현재)



자료: IHS Markit.

〈그림 1-10〉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PMI(2022년 12월과 2023년 10월 현재)



자료: IHS Markit.

(2) 유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83달러 내외 예상

- 2023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근방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다 주요국 금융 위기 우려, OPEC+의 추가 감산 발표, 미 정부 부채한도 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 심화
 - 3월 초 미국과 유럽의 유동성 리스크로 인한 금융 위기 우려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락 하여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미국과 스위스 당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빠르게 반등
- 2023년 하반기에는 공급감소 전망,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은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달러화 강세, 러시아 수출 금지 완화, 원유 공급 증가로 인해 상승세를 제한하며 최근 유가 하락에 기여
 - 러시아 원유 수출의 증가세와 미국 달러 강세 등으로 잠시 하락한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잠시 상승하였지만, 석유 공급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이유로 유가에 미치는 상방압력은 제한적이며 미국과 OPEC의 원유 공급 증가로 유가는 하락세 유지
-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공급 전망치를 상향 수정하며 2024년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세계은행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EIA(미국 에너지 정보청)는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 기관 모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만 전제하는 한편, EIA는 OPEC+의 원유 생산량 감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 감산도 2024년까지 일부 연장된다는 가정을 적용

〈표 1-3〉 국제유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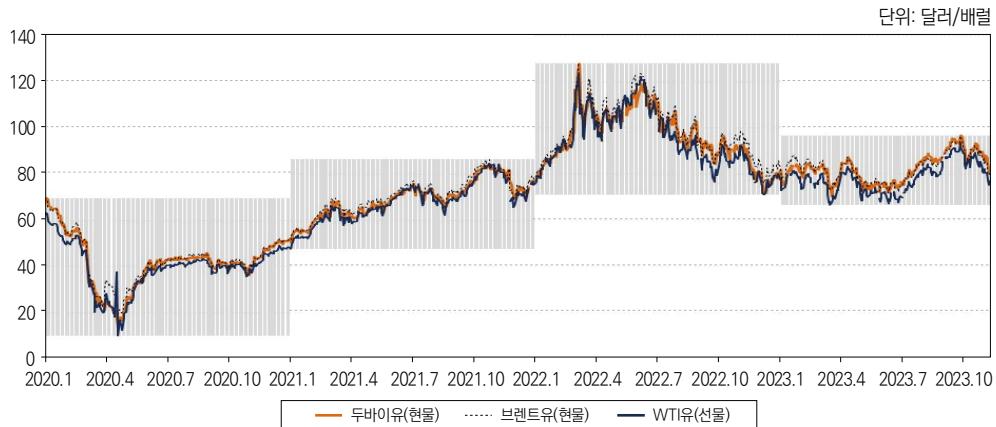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21					2022					202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두바이유	60.1	67.0	71.7	78.4	69.3	95.6	108.1	96.9	84.9	96.4	80.3	77.8	86.7	88.6
브렌트유	61.1	69.0	73.2	79.8	70.8	97.4	111.8	97.8	88.6	98.9	82.2	78.0	86.0	86.7
WTI유	57.8	66.1	70.6	77.2	67.9	94.3	108.4	91.6	82.6	94.2	76.1	76.5	86.8	83.0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2023년 4/4분기는 11월 7일 기준.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1)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솟값~최댓값)임.

2) 2020년 4월 20일 WTI유 가격은 배럴당 -37.6달러를 기록.

○ 2024년 국제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에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다만, 전쟁의 확산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유가 변동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란의 개입,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시 단기적으로 러-우 전쟁 시기(120 달러/배럴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 존재¹⁾

〈표 1-4〉 2024년 국제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79.1 (-22.4)	87.7 (-3.6)	83.4 (-13.5)	84.8 (7.3)	81.2 (-7.4)	83.0 (-0.5)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변화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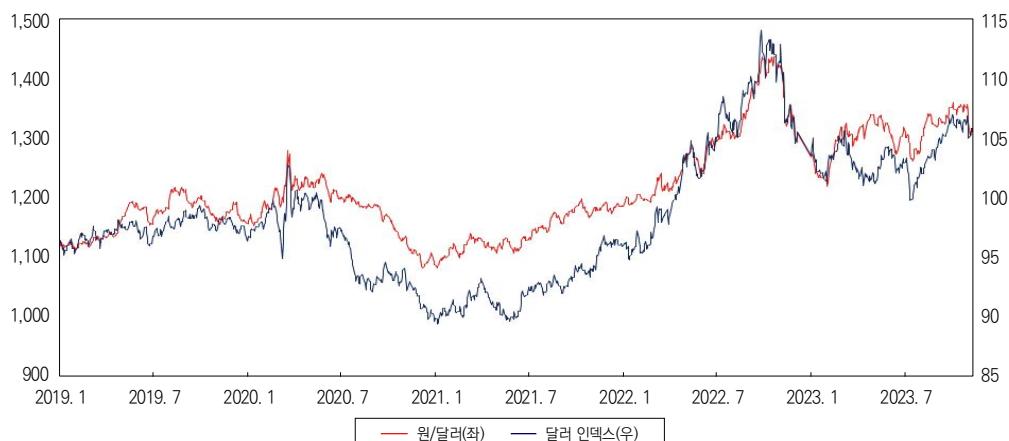
2) 2023년 하반기는 11월 7일 현재 기준.

1) 이란 참전 시나리오 국제유가 전망: 150달러/배럴(Bloomberg), 2022년 이란 원유 생산 비중: 4.1%

(3) 환율: 높은 불확실성 속에 1,280원대 예상

- 2023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연초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에 연저점을 기록한 후 미국 긴축 우려 및 주요국의 유동성 위기 등 달러 강세 요인으로 상승 후 고(高)수준 유지
 - 연초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중 최저점인 1,220.3원(2월 2일)을 기록하였으나 예상을 상회한 1월 CPI로 인한 긴축 우려 확산, 미국과 유럽 금융 리스크 등이 강달러를 지지하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
 - 3월 이후 미국 물가 안정세로 달러는 약세 전환되었으나 국내 수출 부진 및 무역적자 지속, 중국 경기 부진 등 원화 가치 약세 심화로 원/달러와 달러인덱스 간 비동조성이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의 제한적 범위에서 변동(1,270원/달러~1,340원/달러)
-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무역흑자 전환 등으로 하락하다 중국 성장 부진, 고금리 장기화 우려, 중동 정세 불안 등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잠시 상승 전환한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급락
 - 무역흑자 전환(6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이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 부채한도 리스크 해소 및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7월 까지의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지지

〈그림 1-12〉 원/달러,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ICE Data Services, 한국은행, Data Stream.

- 중국 부동산 위기 및 성장세 약화(위안화 약세), 대중 수출 회복 미미 등 원화 약세 요인과 미국 물가 안정세 지연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10월 7일) 등 달러 강세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금리 인상 마무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일시 하회(1,297.3원, 11월 6일)
- 2024년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국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불확실성 요인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산 우려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유가 급등 동반 시 인플레 지속이 미국 고금리 기조를 유지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 존재

〈표 1-5〉 2024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295.3 (5.1)	1,324.2 (-1.9)	1,309.8 (1.4)	1,301.7 (0.5)	1,275.0 (-3.7)	1,288.3 (-1.6)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변화율, 단위 %.

2) 2023년 하반기는 11월 7일 현재 기준.

3. 2024년 국내경제 전망

- 2024년 국내경제는 IT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른 소비 성장세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전년 대비 2.0% 수준의 완만한 성장 예상
 -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등이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주요 불확실성 요인

- 내수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소폭 회복될 전망
 -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부담 확대, 금융 부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으로 성장을 제약할 전망
 - 설비투자는 자동차가 친환경 차량의 견조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완만한 회복과 관련 주요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 집행,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증가, 토목건설 수주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신규 인허가 및 착공, 건설수주액 등의 선행지표들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수출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견조한 수출 규모 유지,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예상
 - 수입은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유가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0.7% 감소가 예상되며, 무역수지는 수출 상승폭이 수입 상승폭을 상회하면서 연간 265억 달러 수준의 흑자 예상

〈표 1-6〉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6	0.9	1.6	1.3	2.2	1.9	2.0
민간소비	4.1	3.1	0.9	2.0	1.6	2.2	1.9
설비투자	-0.9	5.3	-6.0	-0.6	-1.5	5.9	2.1
건설투자	-2.8	1.8	2.5	2.2	1.2	-1.4	-0.2
통관 수출	6,836 (6.1)	3,071 (-12.4)	3,247 (-2.5)	6,318 (-7.6)	3,248 (5.8)	3,423 (5.4)	6,671 (5.6)
통관 수입	7,314 (18.9)	3,333 (-7.8)	3,120 (-15.7)	6,454 (-11.8)	3,162 (-5.1)	3,244 (4.0)	6,406 (-0.7)
무역수지	-478	-262	126	-136	86	179	26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산업연구원 전망치.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2023년 민간소비는 수입물가 하락, 소득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성장세를 이어 가지 못하고 증가세가 크게 둔화

- 민간소비는 2023년 상반기 전년동기비 3.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3분기 전년동기비 0.3% 증가에 그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실질총소득(GNI)이 수입물가 하락과 교역조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2분기 전년동기비 0.8%로 소폭 증가
- 소득교역조건은 국제유가 안정화 및 수입물가의 하락세 지속으로 2023년 2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
 - 소득교역조건(전년동기비, %): (2023. 1/4) -9.67 → (2/4) 0.17 → (3/4) 3.83
 - 국제유가(WTI, 연월): (2023. 6월) 70.3달러 → (9월) 89.43달러 → (10월) 85.47달러 → (11월) 80.44달러
 - 수입물가(전년동기비, %, 달러 기준): (2023. 1/4) -7.44 → (2/4) -15.27 → (3/4) -8.99
- 소매판매는 2023년 들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고, 내구재 판매 또한 고금리, 기저효과 등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3분기에는 감소폭이 확대

〈표 1-7〉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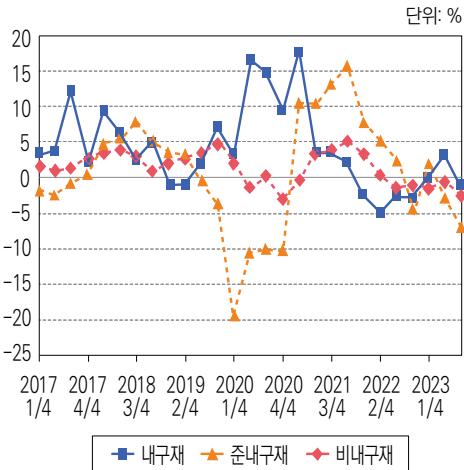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민간소비	3.6	4.0 (-0.6)	4.1 (2.9)	5.2 (1.6)	3.3 (-0.5)	4.1	4.6 (0.6)	1.6 (-0.1)	0.3 (0.3)
소매판매액자수	5.8	2.6 (-1.2)	-0.2 (-0.4)	-0.9 (0.6)	-2.3 (-1.4)	-0.3	-0.4 (1.1)	-0.2 (-0.3)	-2.7 (-2.5)
실질 GNI	3.5	0.0 (0.4)	-1.4 (-0.9)	-0.6 (-0.4)	-0.8 (0.0)	-0.7	0.6 (1.9)	0.8 (-0.7)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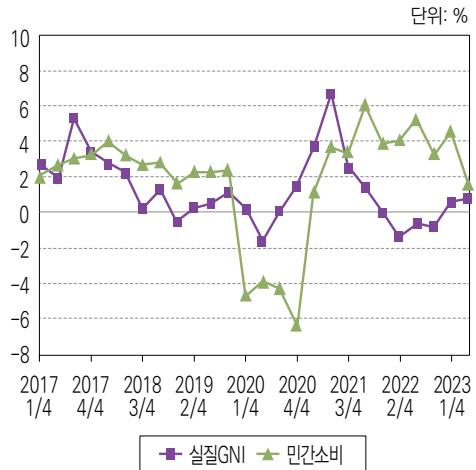
주: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1-13〉 재화별 소비 추이(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1-14〉 민간소비와 실질GNI(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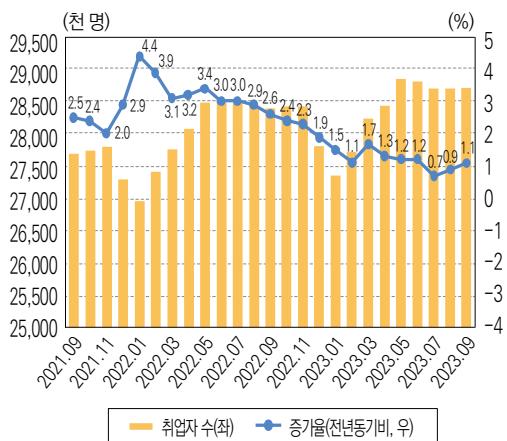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둔화된 모습이나 7월 이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용률 또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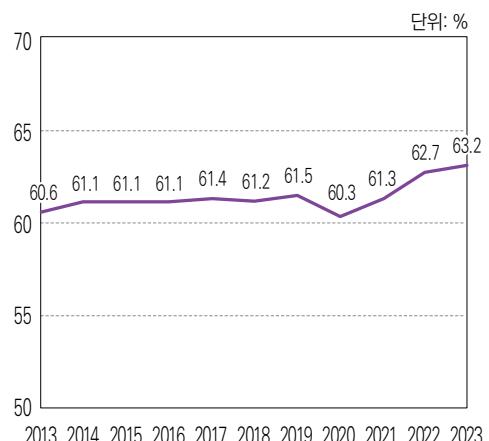
- 취업자 수는 2023년 9월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한 2,870만 명 수준이고, 고용률 역시 전년(2022년 9월 62.7%)보다 0.5%포인트 높은 63.2%를 기록

〈그림 1-15〉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그림 1-16〉 고용률 추이(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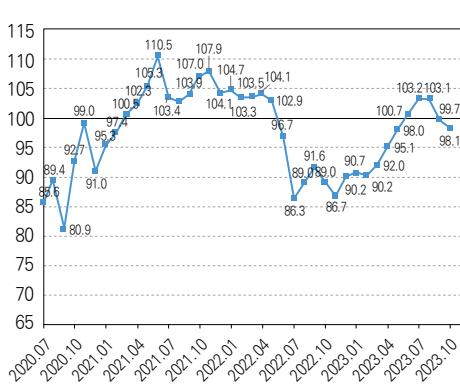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8월 이후 하락하면서 10월에는 100을 하회하는 98.1을 기록하고, 2023년 3분기 가계대출금리는 4.8%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가계부채가 2023년 1분기 소폭 축소 이후 다시 확대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 유지되는 고금리 상황은 시차를 두고 향후 민간소비 확대의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림 1-17〉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1-18〉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자료: 한국은행.

○ 2024년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부담 확대,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 높은 물가수준 등 다수의 제약요인의 영향으로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성장을 제약할 전망

- 다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물가 하락, 금리 하락 등으로 소비 부진은 완화될 전망

〈표 1-8〉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3.1	0.9	2.0	1.6	2.2	1.9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3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2) 투자

□ 설비투자

○ 최근 설비투자는 고금리, 반도체 불황 지속,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

- 2023년 상반기 설비투자의 전년동기비 증가세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전 분기 대비로는 1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하였다가 3분기에는 2.7% 감소하면서 2022년 2분기 (1.6%)에 시작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
- 부문별로는, 기계류가 2023년 상반기에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운송장비는 2023년 2분기 3.2%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9.4%)부터 감소세 지속

〈표 1-9〉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설비투자	-0.9	-7.3 (-4.2)	-6.7 (1.6)	4.4 (7.0)	6.5 (2.4)	5.9 (-5.0)	4.7 (0.5)	-4.7 (-2.7)
기계류	1.7	-4.7 (-3.1)	-4.2 (1.5)	4.6 (7.6)	11.7 (5.2)	7.5 (-6.3)	7.1 (1.0)	-
운송장비	-9.4	-16.3 (-8.0)	-14.1 (1.9)	3.8 (4.9)	-8.6 (-7.3)	-0.5 (0.4)	-3.2 (-1.0)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2)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 2023년 3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증가(-1.2% → -10.6%)

- 기계류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가 8월(전년동기비 -23.7%)과 9월(-9.5%)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분기 부진을 주도하고, 운송장비는 지난해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다가 자동차가 두 자릿수 감소율(-16.1%)을 기록하면서 감소세(-5.8%)로 전환

〈표 1-10〉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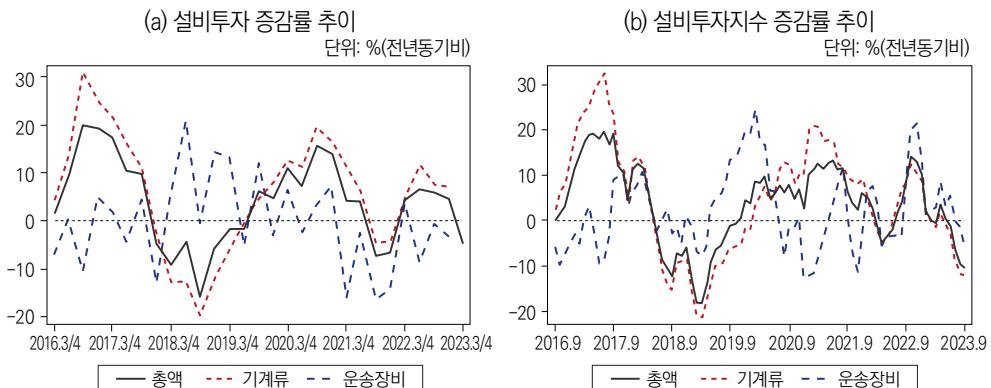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8월 ¹⁾	9월 ¹⁾
부 문 별	총자수	3.3	-1.3	-2.4	7.5	9.6	-0.5	-1.2	-10.6	-14.6	-5.7
	기계류	2.9	-2.4	-2.0	8.0	8.5	-1.4	-3.4	-12.1	-17.2	-7.0
	일반기계류	3.3	-5.3	-2.9	9.6	13.2	-1.0	-1.1	-16.5	-23.7	-9.5
	전기 및전자기기	2.1	5.4	-2.6	4.6	1.4	-4.6	-10.3	-5.3	-5.3	-3.7
	정밀기기	4.6	-2.0	4.4	10.9	5.3	5.7	-2.9	-6.2	-8.6	-4.2
	기타기기	-1.1	0.2	-0.7	-0.8	-3.2	-8.5	-7.0	-3.9	-5.8	0.0
	운송장비	4.3	2.6	-3.8	5.9	13.0	2.1	5.6	-5.8	-6.5	-2.0
	자동차	7.3	-2.2	-3.4	17.4	19.0	13.1	9.2	-16.1	-21.4	-11.6
	기타운송장비	0.2	9.5	-4.4	-7.8	5.1	-12.5	0.5	9.9	20.4	11.3

자료: 통계청.

주: 1) 잠정치.

〈그림 1-19〉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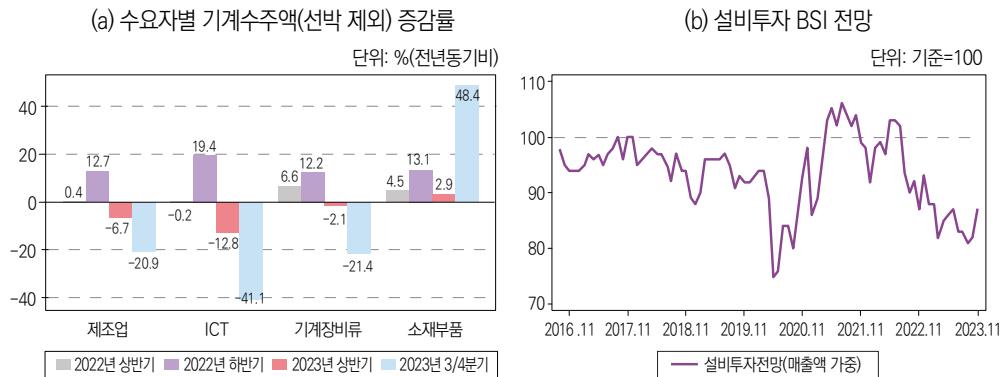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 설비투자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액은 2023년 3분기 ICT와 기계장비류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41.1%, -21.4%)되면서 부진(민간 제조업 기준 전년동기비 20.9% 감소)했고, 설비투자 BSI는 증가세로 전환(10월 82, 11월 87)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모습
 -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23년 3분기 기계장비류(-15.0%포인트), 석유정제(-8.4% 포인트), 섬유제품(-9.1%포인트) 등에서 감소했으나, ICT(1.9%포인트)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제조업 전체 기준 감소세가 진정되는 모습(8월 0.8%포인트, 9월 3.1%포인트)

〈그림 1-20〉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표 1-11〉 설비투자 조정압력 추이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7월	8월 ¹⁾	9월 ¹⁾
제조업		6.7	5.5	1.3	-5.9	-7.8	-5.5	-0.8	-6.3	0.8	3.1
ICT		16.5	11.6	-7.2	-20.7	-26.8	-14.0	1.9	-11.3	6.2	11.8
기계 장비류	자동차	-6.3	3.6	16.7	12.8	17.5	11.9	2.9	4.2	6.2	-1.6
	기타운송장비	20.7	24.5	22.5	20.0	11.8	6.0	9.8	6.9	12.2	10.6
	일반기계	-0.2	-0.7	12.6	9.7	4.2	-6.2	-15.0	-17.1	-16.2	-11.5
소재 부품	석유정제	3.8	1.1	4.7	-2.4	0.2	1.7	-8.4	-9.2	-14.8	-0.6
	화학제품	0.4	-5.2	-15.6	-18.8	-19.0	-14.9	-3.0	-7.4	-2.4	1.1
	1차금속	1.3	-1.5	-9.4	-18.8	-6.6	-2.7	1.2	-5.6	-1.2	13.2
	섬유제품	14.7	11.8	8.6	-0.5	-5.5	-9.6	-9.1	-12.8	-7.4	-7.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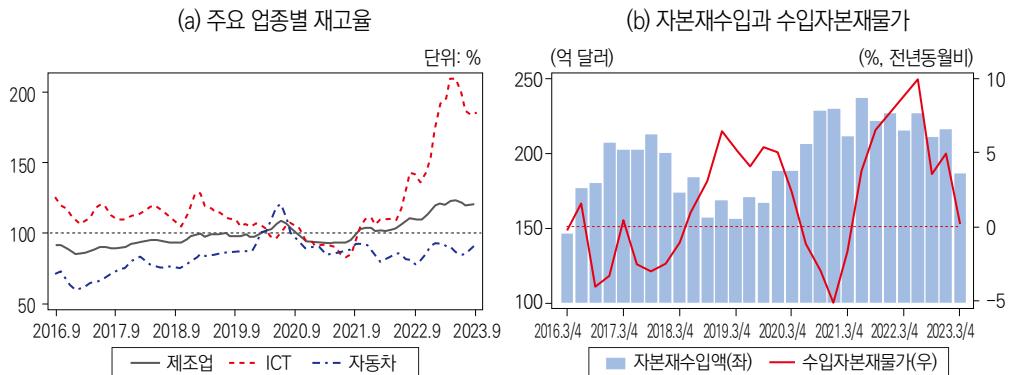
주: 1) 잠정치.

2) 설비투자조정압력=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 최근 제조업 재고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113.9%)을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등 ICT 업종의 재고율은 9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관련 업황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

-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업황 개선과 글로벌 IT 수요 회복 등이 전망의 상방요인이며, 높은 재고 수준은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재고 관리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 시사
- 수입 자본재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은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²⁾

〈그림 1-21〉 재고율과 자본재수입



- 2024년 설비투자는 자동차가 친환경 차량에 대한 견조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완만한 회복과 관련 주요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 집행,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³⁾
-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 시점의 지연, 고환율 장기화, 중국의 경기 부진 심화 등의 불확실성은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⁴⁾

〈표 1-12〉 설비투자 전망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설비투자	5.3	-6.0	-0.6	-1.5	5.9	2.1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3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
- 2) 자본재 수입 점유율: 30.9%(2023년 8월 기준).
 - 3) 주요 IT 기업의 2024년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
 - SK하이닉스: “내년 CAPEX(설비투자)는 올해 대비 증가할 것이나, 투자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여 증가분을 최소화”
 - 삼성전자: “수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설비투자를 집행하는 기조를 여전히 유지”
 - 4) 김훈기(2023), 「현대차, 10년간 109조 투자로 2030년 전기차 200만대 판매로 목표 상향」, 오토헤럴드, 6월 20일, 장은파(2023), 「현대차 9월 울산공장에 전기차 신공장 착공, 2024년 말 준공 예정」, 비즈니스 포스트, 7월 24일.

□ 건설투자

○ 2023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수급이 개선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건물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시현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건설이 올해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 건설기성액은 건물건설 부문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토목건설 부문이 3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 건설기성액(불변, 전년동기비, %): (2023. 1/4) 11.5 → (2/4) 8.9 → (3/4) 11.9
 - * 건물건설 부문(불변, 전년동기비, %): (2023. 1/4) 15.1 → (2/4) 12.7 → (3/4) 12.7
 - * 토목건설 부문(불변, 전년동기비, %): (2023. 1/4) 0.7 → (2/4) -2.0 → (3/4) 9.0

〈표 1-13〉 건설투자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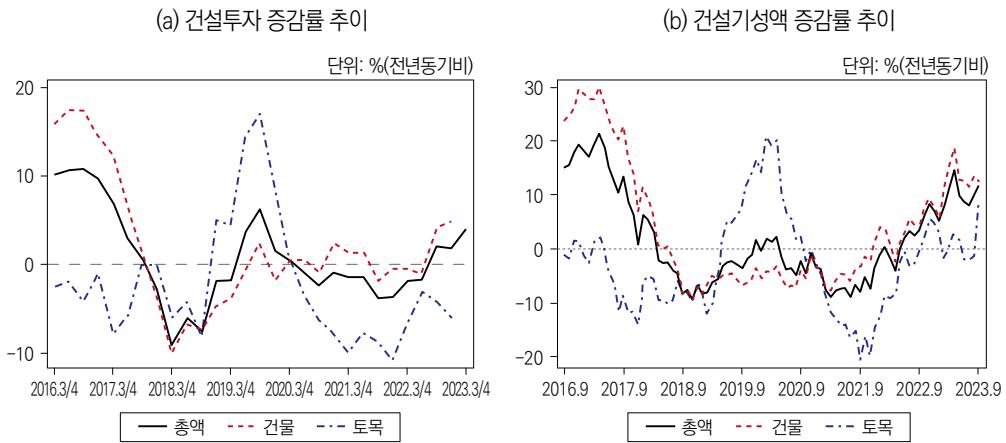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건설투자		-2.8	-3.8 (-2.5)	-3.7 (-0.6)	-2.0 (-0.1)	-1.8 (1.3)	1.9 (1.3)	1.7 (-0.8)	4.0 (2.2)
형태별	건물건설	-1.0	-1.9 (-2.9)	-0.6 (1.0)	-0.5 (0.1)	-1.2 (0.6)	4.2 (2.6)	4.8 (1.4)	-
	주거용 건물	-3.0	-5.0 (-8.0)	1.2 (5.7)	-2.0 (-2.0)	-6.2 (-1.6)	5.7 (4.0)	5.2 (4.7)	-
	비주거용 건물	0.9	1.3 (2.2)	-2.2 (-3.3)	0.9 (2.1)	3.8 (2.6)	2.7 (1.2)	4.5 (-1.7)	-
	토목건설	-7.4	-8.8 (-1.3)	-10.9 (-4.8)	-6.6 (-0.4)	-3.1 (3.3)	-4.3 (-2.1)	-6.0 (-7.1)	-
주체별	민간	-2.0	-3.1 (-2.6)	-1.0 (2.8)	-1.6 (-1.5)	-2.6 (-1.1)	2.1 (2.0)	2.0 (2.6)	-
	정부	-5.6	-6.8 (-2.0)	-11.6 (-13.5)	-4.5 (6.4)	1.1 (11.1)	1.3 (-1.2)	0.8 (-13.4)	-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2)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그림 1-22〉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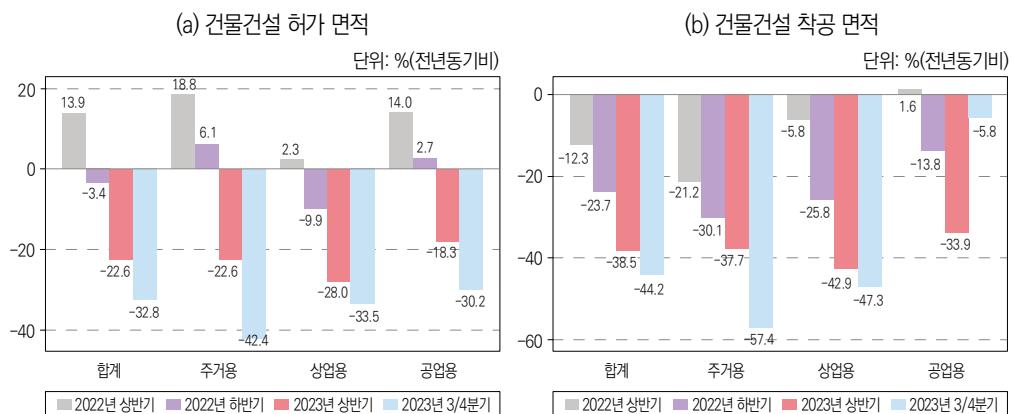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 건물건설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올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을 암시
- 건설투자 선행지표를 보면, 건설수주액은 토목건설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준 반면, 건물건설이 크게 부진하면서 총액 기준 감소세(2023년 3분기 -31.5%)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심리지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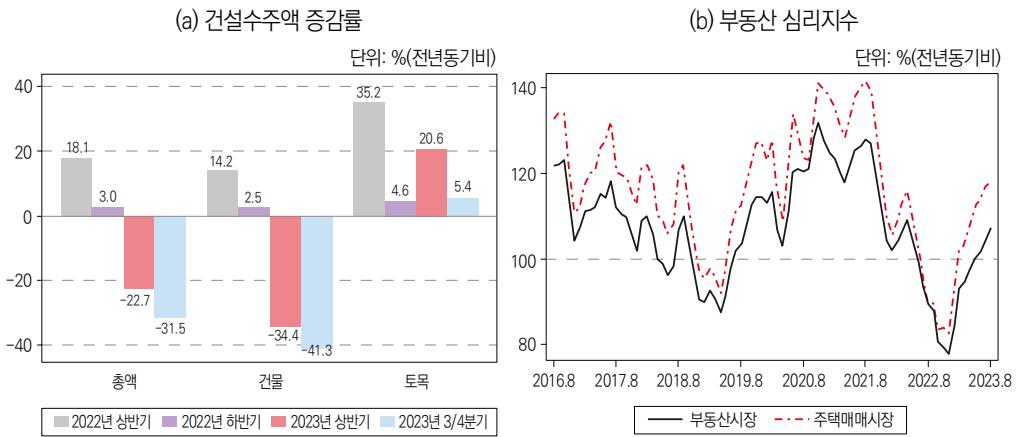
〈그림 1-23〉 건물건설 인허가·착공 추이



자료: 통계청.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그림 1-24〉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국토연구원.

- 2024년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⁵⁾, 토목건설 수주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신규 인허가 및 착공, 건설 수주액 등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올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1-14〉 건설투자 전망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1.8	2.5	2.2	1.2	-1.4
						-0.2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3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5) GTX 공사 등 정부부문의 토목건설 증가 예상,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년 SOC예산 26조 1,000억 원(2023년 25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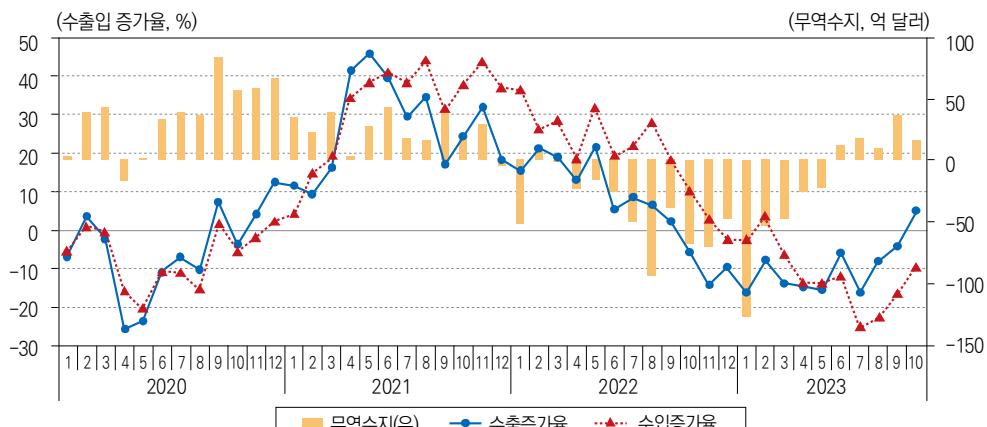
3) 수출입(통관기준)

□ 2023년 수출입 동향: 수출 부진 완화, 수입 감소로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 전환

○ 2023년 수출은 전년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하반기 들어 완화되고 있으나, 수입은 오히려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들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안정되고 에너지 및 원자재 물량도 조정을 보임에 따라 수입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6월부터 흑자 전환하고 수출은 10월 들어 상승 전환
- 수출(전년동기비, %): (2022) 6.1 → (2023. 1/4) -12.7 → (2/4) -12.0 → (3/4) -9.7 → (10월 5.1)
- 수입(전년동기비, %): (2022) 18.9 → (2023. 1/4) -2.2 → (2/4) -13.2 → (3/4) -21.7 → (10월 -9.7)

〈그림 1-25〉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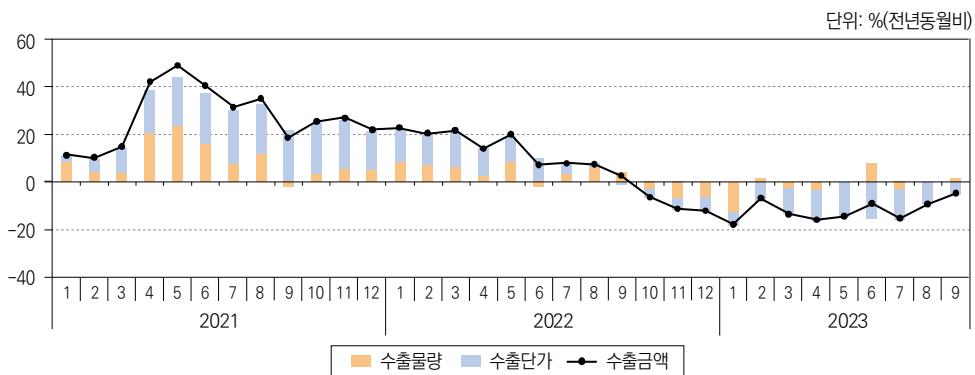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단가 변동이 수출 금액 증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2023년 수출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원자재 및 유가 인상의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가격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

- 2022년 말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수요 부진이 일부 물량 감소로 반영되었으나 가격요인에 비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미약
 - 수출물량(전년동기비), %: (2022) 1.9 → (2023. 1/4) -5.0 → (2/4) 1.2 → (3/4) -0.9
 - 수출단가(전년동기비), %: (2022) 4.8 → (2023. 1/4) -8.5 → (2/4) -14.4 → (3/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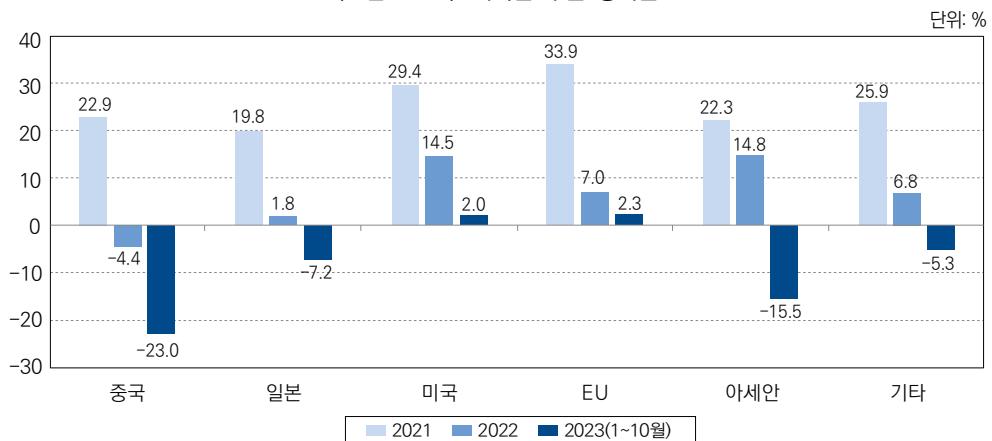
〈그림 1-26〉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저자 작성.

- (지역별 수출) 미국과 EU 등 선진국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중국, 아세안(ASEAN) 등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

〈그림 1-27〉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중국 수출은 2022년에 이어 2023년 들어서도 10월까지 전년동기비 23% 감소하고, 대아세안 수출 역시 15.5% 감소
 - 중국 및 아세안에 대한 수출 감소는 반도체 업황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과 EU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부문이 수출을 주도
- (품목별 수출) 자동차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반도체는 2023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수출 부진도 완화
- 자동차 수출은 2022년에 전년 대비 16.4% 증가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수출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반도체는 2023년 1분기 전년동기비 기준 40% 감소한 이후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어 10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기준 한 자릿수 감소율(-3.1%) 기록
 - 일반기계 및 철강, 섬유, 가전,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2023년 수출실적이 개선 되거나 둔화폭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한편 석유화학은 감소세가 지속

〈표 1-15〉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16.4	43.9	48.9	17.2	58.3	15.0	28.8	9.5	19.8
자동차부품	2.4	-3.6	1.0	0.4	5.5	-0.5	5.9	-3.5	-3.7
선박류	-20.9	2.0	21.3	-3.7	98.9	-30.9	35.1	15.4	101.4
일반기계	-3.7	-2.0	5.6	6.6	7.9	2.8	7.6	9.8	10.4
철강	5.7	-15.8	-5.7	-5.7	3.1	-10.4	-11.4	6.9	-0.7
석유화학	-1.4	-22.3	-24.2	-14.2	-22.2	-23.8	-11.7	-6.1	-3.2
석유제품	64.9	-0.5	-34.8	-27.7	-40.0	-39.3	-33.0	-6.9	18.0
섬유	-3.9	-15.2	-11.2	-11.7	-2.8	-15.4	-10.9	-8.5	-9.0
가전	-7.4	-8.5	-7.5	7.5	3.3	2.4	12.2	8.5	5.8
무선통신기기	6.4	-13.4	-20.8	-8.2	-12.3	-15.4	-8.6	-3.1	-4.5
컴퓨터	-5.1	-61.9	-61.6	-48.1	-53.5	-33.4	-54.6	-53.9	-30.4
반도체	1.0	-40.0	-34.8	-22.6	-28.0	-33.6	-20.6	-13.6	-3.1
디스플레이	-1.1	-39.5	-16.5	1.2	-11.1	-4.6	4.1	4.2	15.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량 증가세와 단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2023년 들어 수입단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물량 역시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점차 확대
 - 에너지를 비롯한 철강, 반도체 등 업황이 부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입 역시 큰 폭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에 기여

〈표 1-16〉 가공단계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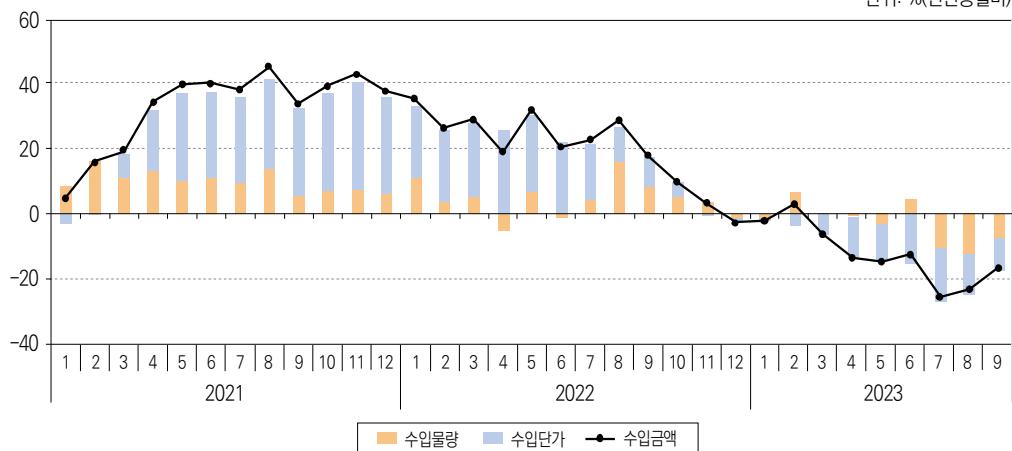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2022			2023(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7,314	18.9	100	4,840	-12.6	100
1차산품	1,809	41.4	24.7	1,090	-22.2	22.5
(원유)	1,060	58.1	14.5	624	-23.5	12.9
중간재	3,712	18.6	50.8	2,478	-11.1	51.2
자본재	891	-1.9	12.2	614	-7.6	12.7
소비재	874	8.3	12.0	639	-3.6	13.2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28〉 수입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자료: 한국은행.

□ 2024년 수출입(통관) 전망: 수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 수입은 0.7% 감소 전망

○ 2024년 수출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견조한 수출 규모 유지,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예상

- 반도체는 업황 개선, 주요 기업들의 감산정책의 영향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전년도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두 자릿수(15.9%) 증가 예상

- 지역별로는 그동안 큰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 및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수출 회복세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

- 유가와 환율의 변동폭은 크지 않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수입은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국제유가 안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0.7% 감소 예상

- 수출 업황 개선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액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개선 흐름에 따라 상반기 대비 하반기 규모가 더 클 전망

○ 2024년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연간 265억 달러 수준의 흑자 예상

〈표 1-17〉 2024년 수출입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6,836 (6.1)	3,071 (-12.4)	3,247 (-2.5)	6,318 (-7.6)	3,248 (5.8)	3,423 (5.4)	6,671 (5.6)
통관기준 수입	7,314 (18.9)	3,333 (-7.8)	3,120 (-15.7)	6,454 (-11.8)	3,162 (-5.1)	3,244 (4.0)	6,406 (-0.7)
무역수지	-478	-262	126	-136	86	179	265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주: 2023년 하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참고〉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부진 지속

- 2분기 들어 대중국 수입이 감소 전환하면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하였으나,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부진
 - 2022년 2분기에 대중국 수출이 감소로 전환된 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23년 1~9월 누계 9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
 -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 고조
-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대중 수입 비중은 변화가 미미한 데 반해, 대중국 수출 비중은 감소세가 뚜렷
 - 한국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26.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19.7%까지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수입 비중은 20% 내외를 유지
 -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3%까지 감소하여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

최근 대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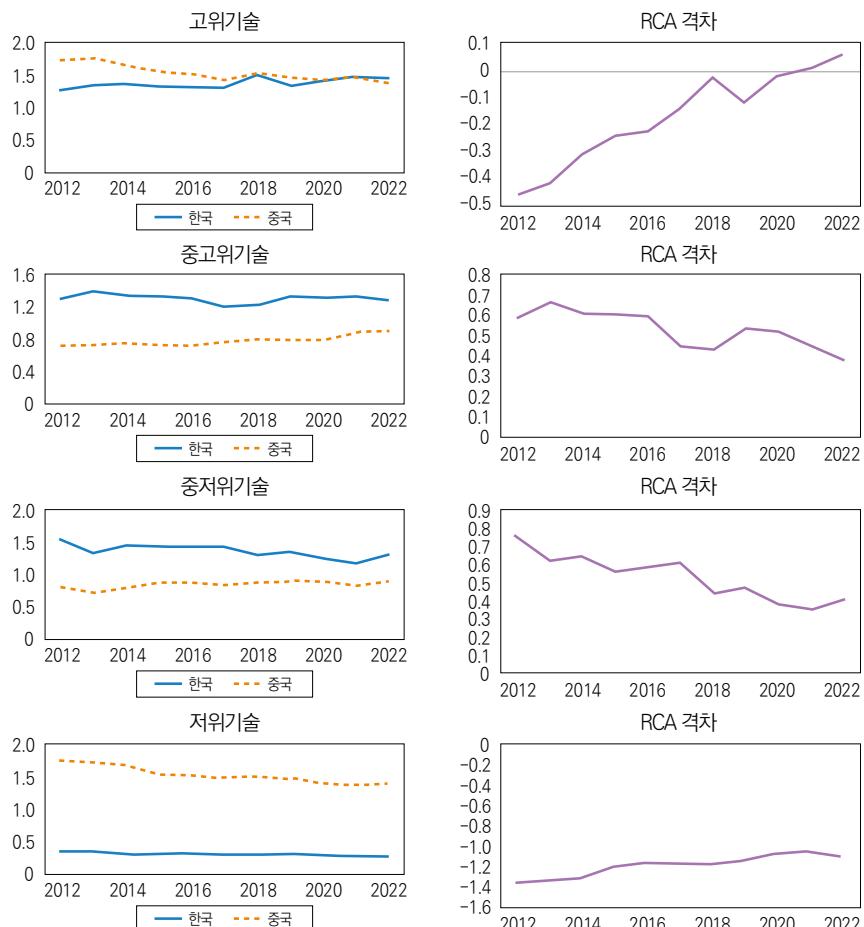
분기	수출	수입		무역수지
		증감률 (전년동기비)	전체 수출 대비 비중	
2022	1	15.5	24.3	20.4
	2	-1.0	22.2	22.3
	3	-5.0	22.8	20.8
	4	-22.9	21.8	21.0
2023	1	-29.7	19.5	-78
	2	-22.2	19.6	-54
	3	-20.8	20.0	-26

자료: 무역협회.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구조 요인 ①)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으로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였고, 분석 결과 이러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은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어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

한·중 기술수준별 수출경쟁력(RCA) 및 양국 간 RCA 격차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주: RCA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에서 그 국가의 수출이 세계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구조 요인 ②)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감소했는데, 이는 동 기간 주요국과 비교하여 축소폭이 큰 것
-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은 점유율이 하락하여 중국의 수입선 변화 가능성과 함께 중국 내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의미

중국 수입시장에서 국가별 주요 산업의 점유율 비교

단위: %, %포인트

	한국			아세안			미국			일본		
	2010	2021	증감	2010	2021	증감	2010	2021	증감	2010	2021	증감
고위기술	17.2	15.2	-2.0	17.7	19.4	1.7	7.0	5.6	-1.4	11.6	6.8	-4.8
디스플레이	39.9	20.3	-19.6	0.3	2.6	2.3	0.1	0.2	0.1	9.3	12.1	2.8
전지	29.5	14.3	-15.2	4.0	23.1	19.1	1.9	2.9	1.0	36.4	21.4	-15
중고위기술	11.3	10.4	-0.9	6.3	11.4	5.1	9.0	9.5	0.5	23.6	19.6	-4.0
자동차	8.3	2.0	-6.3	0.6	3.0	2.4	7.7	2.0	-5.7	32.1	19.2	-12.9
기타전자부품	12.6	7.6	-5.0	9.6	14.5	4.9	2.5	15.5	13	23.4	24.4	1.0
중저위기술	12.5	7.5	-5.0	14.4	18.5	4.1	5.0	6.2	1.2	18.0	8.7	-9.3
석유정제	23.4	9.2	-14.2	29.3	23.1	-6.2	2.5	14.2	11.7	6.9	1.4	-5.5
철강	17.5	8.3	-9.2	1.3	39.0	37.7	2.4	0.8	-1.6	37.3	13.8	-23.5
저위기술	4.5	1.8	-2.7	16.7	20.7	4.0	12.1	7.7	-4.4	7.9	3.2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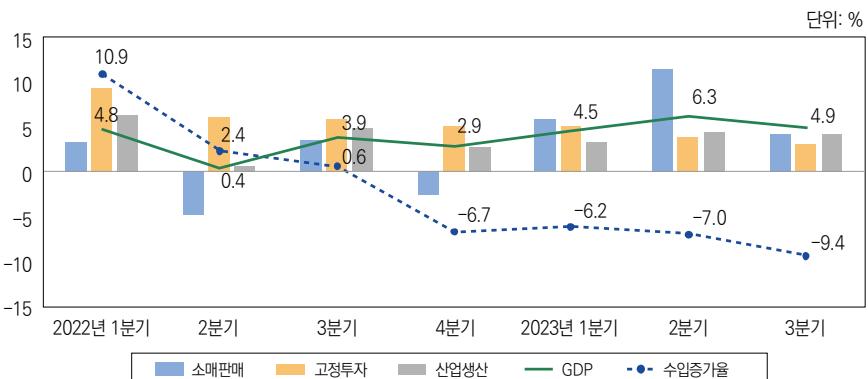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주: 중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액에서 중국의 국가별, 산업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기 산업은 2010년 대비 점유율 감소 5% 포인트 이상인 산업만 정리.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수요 요인 ①) 중국 경기 회복 지연

-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
 - 2023년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4.9%로 예상보다 더딘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소매판매, 고정투자,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증가세가 둔화

중국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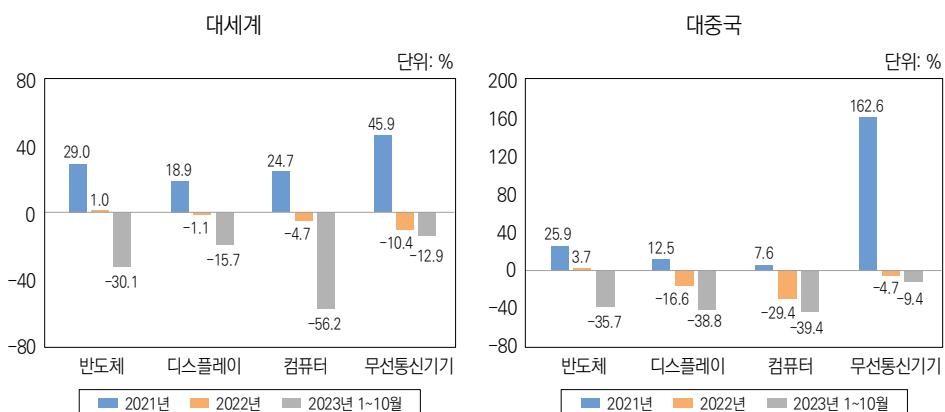


자료: 중국 경제통계국.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수요 요인 ②) 글로벌 IT 경기 부진

- 글로벌 IT 경기 부진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였고, 기업의 감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 반등이 크지 않은 상황
 - 대중국 수출 부진과 글로벌 IT 경기 침체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글로벌 IT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주력 IT 품목이 특히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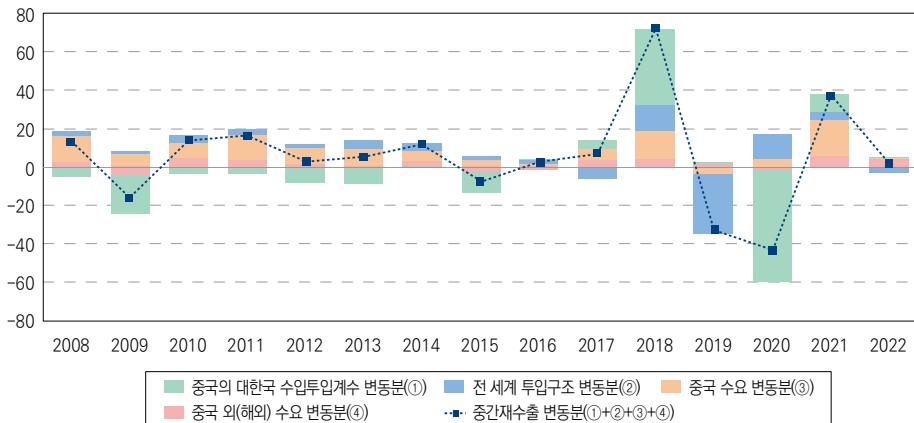
반도체 및 주요 IT제품 수출 추이



자료: 무역협회.

-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커으나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
 -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2015년까지 대세계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입투입에 의존한 중간재 수출분은 지속적으로 감소
 -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세계 투입구조와 한국산 수입투입계수가 감소하면서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부(-)의 영향
 -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2022년 이전 전 세계 수요변화를 통한 수출 증분을 상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 투입구조와 같은 기술 요인은 경기의 영향을 받는 수요 요인과 달리 단기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 존재

귀착지분석 요인 분해 분석 결과



- 최근에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수요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
 - 중국 중간재 자급률 상승,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중국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IT 경기 부진 등 경기적 요인으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 반도체는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확인되고, 중국의 자급률이 낮은 수준이므로 IT 경기가 개선되는 경우 수출 회복이 기대

□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수출 품목을 육성하여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
- 중국이 중요한 수출시장임은 변화가 없으나,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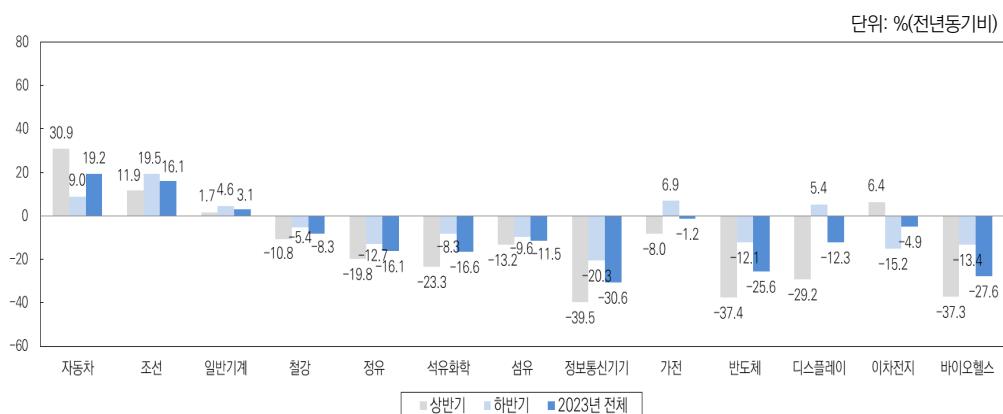
13대 주력산업 전망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수출: 기계산업군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소재 및 IT 신산업군 수출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 2023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팬데믹 특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 예상
 - 단, 하반기에는 IT 수요 확대와 단가 안정화 영향으로 일부 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수출의 감소세가 둔화(-4.8%)

〈그림 2-1〉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추정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은 글로벌 수요 호조 및 공급망 정상화로 수출이 큰 폭 확대된 자동차(19.2%) 산업과 풍부한 수주잔량 및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조선(16.1%)과 기계산업(3.1%)의 수출 증가로 2022년 대비 13.2% 증가

-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 완화로 완성차 공급이 정상화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이연된 수요가 실현되면서 전년 대비 19.2%의 큰 폭 증가와 900억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
- 조선은 2021년 대규모 수주의 영향으로 수출이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력 영향으로 증가치는 예상을 하회
- 일반기계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의 건설, 교통 인프라 및 EPC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

○ (소재산업군) 2023년 소재산업군의 수출은 주요 수출국 수요 부진과 단가 하락 및 2022년 급등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2% 감소 전망

- 철강은 제조업 및 건설경기 호조세를 나타낸 EU, 인도, 일본향 수출 증가와 튀르키예의 지진복구 수요가 증가하며 물량으로 5.3% 증가하였으나 평균 수출단가가 10% 이상 하락하여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8.3% 감소
- 정유 수출은 물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유가 하락 및 정제마진 감소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15% 이상 하락하며 수출액은 16.1% 감소
- 석유화학은 주요 수출국의 자급률 상승과 수요 둔화로 인한 물량 감소와 더불어 동아시아 공급과잉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 추정
- 섬유산업의 수출은 선진권 의류 수요 위축과 베트남, 중국 등 생산 기지향 섬유소재 수출 동반 급감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

○ (IT신산업군) IT신산업군은 팬데믹 특수 종료에 따른 역기저효과 및 IT제품 소비 둔화로 특히 상반기 수출이 급감, 반도체(-25.6%), 정보통신기기(-30.6%), 바이오헬스(-27.6%) 등 대다수 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산업군 전체로는 수출이 전년 대비 23.5% 감소 예상

-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스마트폰 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세계 스마트폰 및 SSD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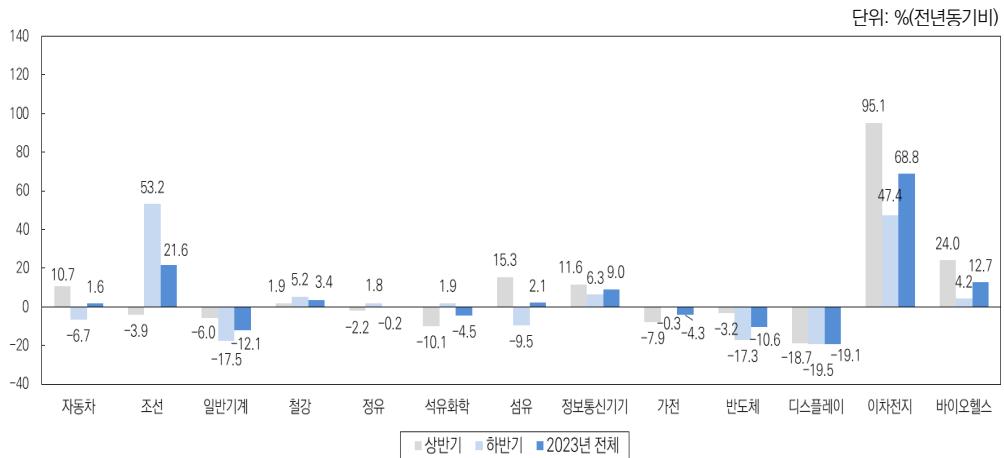
요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0.6%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가전 수출은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상반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연간 1.2%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주요국 수요 회복 영향으로 증가 전환
- 반도체는 수요 회복 지연과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던 2022년 상반기 수출의 기저효과로 상반기 수출이 34.7%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감산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며 연간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
- 디스플레이에는 하반기(5.4%)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상반기(-29.2%)의 큰 폭 감소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2.3% 감소 예상
- 이차전지 수출은 상반기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4.9% 감소
- 바이오헬스 수출은 팬데믹 특수 종료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관측된 수출 감소세가 2023년 상반기에 회복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전년 대비 27.6% 감소

□ 내수: 국내 경기와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상반기의 증가세가 하반기 감소세로 전환

- 자동차, 섬유, 정보통신기기, 신산업군의 상반기 내수 증가 추세가 하반기 들어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
- (기계산업군) 자동차(1.6%)와 조선(21.6%)은 국내 판매 실적 호조로 증가한 반면 일반기계(-12.1%)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감소
- 자동차는 하반기(-6.7%) 전기차 판매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상반기(10.7%) 원활한 공급, 대기 수요 해소 및 신차효과에 의한 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171만 대를 기록할 전망
- 조선 내수는 인수 연기·지연으로 예상보다 감소했지만, 국내에 대량으로 컨테이너선과 가스운반선을 인도하여 전년 대비 21.6% 증가한 169만 CGT 규모로 추정
- 일반기계는 주요 수요산업(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경기가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 추정

〈그림 2-2〉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추정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소재산업군) 자동차 및 조선 산업의 호조와 야외활동 증가 영향으로 철강(3.4%)과 섬유(2.1%)는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4.5%)과 정유(-0.2%)는 반도체 등 수요산업의 둔화 영향으로 감소

- 철강은 자동차 판매량 호조, 조선업 시황 회복에 따른 판재류 및 조선용 중후판 수요 증가와 지난해 내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3.4% 증가 예상
- 정유는 항공용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약 90%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석유화학용 및 발전용 수요 축소로 0.2% 감소 예상
- 석유화학은 반도체, 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 경기 둔화의 영향에 따른 석유화학 중간재 수요 감소로 4.5% 감소하였으며 2022년의 감소세 지속
- 섬유 내수는 상반기 야외활동 및 여행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3%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산업자재용 수요 둔화에 따라 연간으로는 2.1% 증가 예상

○ (IT신산업군) 반도체(-10.6%), 가전(-4.3%), 디스플레이(-19.1%)는 IT제품 시장 위축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은 신제품 출시와 주력 제품의 국내 시장 확대로 증가

- 정보통신기기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PC 시장이 위축되었지만 신규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교체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가전 내수는 상반기 세탁기, TV, 냉장고 등의 대형가전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비 7.9%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추진으로 내수 감소세가 0.3%로 둔화되며 연간으로는 전년비 4.3% 감소로 추정
- 반도체 내수는 코로나19 이후 PC 등 반도체 수요제품의 경기 부진과 SSD를 비롯한 컴퓨터 부품에 사용되는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0.6% 감소
- 디스플레이 내수는 패널 양사의 LCD 생산 축소에 따른 지속적인 소재부품 수요 감소 영향으로 19.1%의 큰 폭 감소세 지속
- 이차전지 내수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68.8% 상승
- 바이오헬스는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 확대 및 첨단 의료장비 도입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

□ 생산: IT산업 수출 부진, 공급차질 요인 발생으로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의 생산이 부진

○ (기계산업군) 자동차(9.9%) 생산은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조선(18.3%)은 증가하였으나 생산능력 한계로 예상치 하회, 일반기계(-6.8%)는 비중이 큰 내수 부진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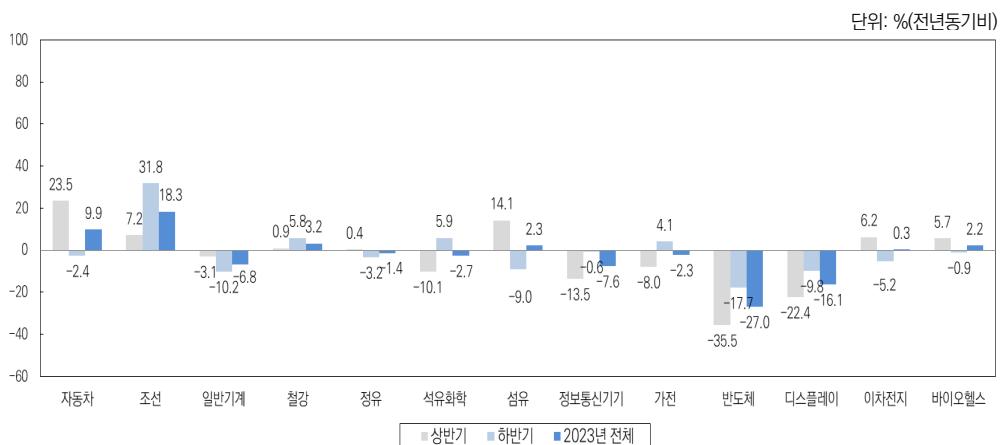
- 자동차 생산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9% 증가한 412만 대를 기록할 전망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2018년 402만 대를 생산한 후 5년 만에 400만 대를 돌파
- 조선은 수출과 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으나 생산능력 한계 등으로 예상치에 비해 낮은 성장을 기록
- 일반기계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크게 부진하여 전년 대비 6.8%로 감소 전환

○ (소재산업군) 철강(3.2%)은 생산 정상화로 증가, 정유(-1.4%)와 석유화학(-2.7%)은 국내

외 수요 부진 및 정기 보수 영향으로 감소

- 철강은 지난해 침수피해 설비 복구 완료에 따른 조업 정상화 및 내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2% 증가
- 정유는 국내 정유사의 가동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3분기 대규모 정기보수 및 역기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 석유화학 생산은 제품 스프레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설비 정기 보수 영향으로 상반기(-10.1%)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평년에 못 미치는 수준의 증가를 기록함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7% 감소
- 섬유 생산은 급격한 수출 둔화 및 화섬사 구조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수 확대 및 가격 상승효과로 전년 대비 2.3% 증가

〈그림 2-3〉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추정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IT신산업군)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생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반도체(-27%), 정보통신기기(-7.6%) 등의 IT산업은 수출 부진 영향으로 큰 폭 감소세 기록 전망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SSD 및 스마트폰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 추정

- 가전은 수출과 내수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상반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2.3% 감소
- 반도체 생산은 수출 부진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영향으로 연간 27% 감소, 다만 하반기에는 감소세가 둔화되는 추세
- 디스플레이 생산은 하반기 OLED 수요 반전으로 인한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LCD 감산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전년 대비 16.1% 감소
- 이차전지 생산은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해외투자 확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바이오헬스는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신약 출시 지연에 따라 전년 대비 2.2% 증가에 그치며 현상 유지 전망

□ 수입: 내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자동차 및 이차전지 제외 대다수 산업에서 감소

○ (기계산업군) 모든 산업에서 하반기 수입 급감으로 연간 1.9%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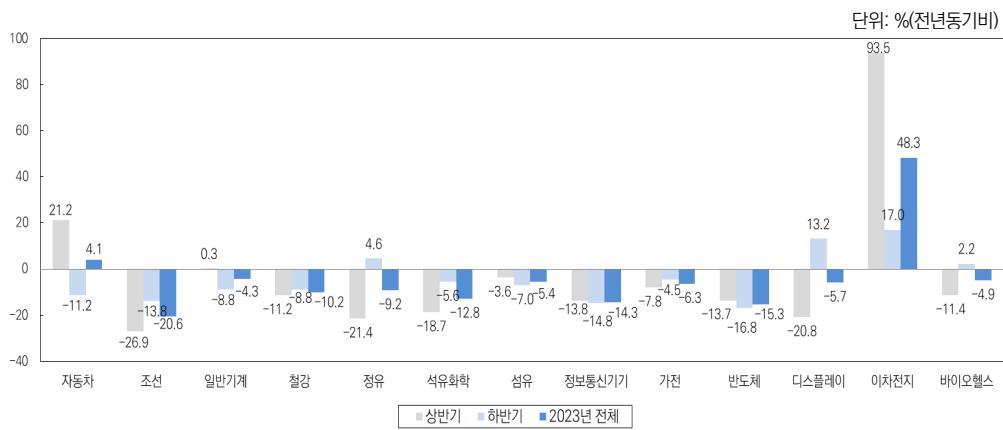
- 자동차 수입은 물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상승 및 부품 수입 증가 요인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230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조선은 해양플랜트 및 선체 블록, 주요 기자재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해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중고 화물선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6% 감소
- 일반기계 수입은 국내 제조업 경기 부진에 따른 기계류 투자수요 감소 등 전반적인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4.3% 감소

○ (소재산업군) 내수 부진 및 단가 하락으로 9.2% 감소하였으나 철강은 저가 수입 물량이 큰 폭 증가

- 철강은 단가 하락에 따라 수입액이 10.2% 감소하였으나 엔저에 따른 일본산 수입 증가와 하반기 저가 중국산 유입 확대로 철강재 수입 물량이 10.4% 증가
- 정유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단가가 약 13.5% 하락하며 수입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9.2% 감소

- 석유화학은 상반기 내수 부진과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
- 섬유 수입은 전년 실적 호재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하반기 소비 위축으로 5.4% 감소 예상

〈그림 2-4〉 2023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추정



주: 1) 달러화 기준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IT신산업군) 전기차 수출용 이차전지 역수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

-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비심리가 저하되면서 스마트폰, PC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 추정
- 가전 수입은 고환율 및 고유가에 따른 수입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중국, 베트남 등에서의 수입이 국내 생산품(또는 재고)으로 일부 대체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
- 반도체 수입은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고가의 시스템반도체가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수입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국내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 진출 국내 기업으로부터의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도 감소하면서 전년에 비해 15.3% 감소세로 전환
- 디스플레이에는 하반기에 LCD 재고 조정 물량 증가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상반기 수입 감소를 상회하지 못하여 전년 대비 5.7% 감소

- 이차전지 수입은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중국 생산거점으로부터의 조달 물량 확대, 중국 산 리튬인산철(LFP)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8.3% 증가
- 바이오헬스 수입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수요가 빠르게 상실되면서 상반기 크게 감소 하였으나 하반기 당뇨병 치료제(마운자로), 림프종 치료제(김리아) 등 고가 의약품의 처방이 확대되면서 수입이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4.9% 감소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대외 여건 변화: 세계 IT 시장의 성장, 디지털 전환·친환경화 추세는 수요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나 거시 불확실성이 성장세를 제약
- (세계 수요 여건) 2023년 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가 2024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전환·친환경화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투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 긴축기조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수요 회복을 제약
 -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고 주요 제품의 교체수요로 글로벌 ICT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 소재 시장은 친환경·프리미엄제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혁신신약 효과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수요도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 완성차는 대기수요가 축적되어 있으나 전기차는 보조금 축소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표 2-1〉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미국, 유럽 등 주요시장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대기 수요	❖❖
	·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	↑
	·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조선	· 해운 시장의 더딘 개선과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 지속	↑
	· 높은 금리 및 금융 불안으로 인한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조선	· 주요 우량조선사의 풍부한 수주잔량과 긴 납기로 인한 고선가 선별 수주	↑
	·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 확대	✧
일반기계	· 선진국 인프라 투자 지속	✧
	·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 건설경기 호조세	✧
	· 지정학적 긴장 고조(러-우, 이-팔 전쟁)	↑
	· 고물가, 고금리, 통화긴축 기조 지속	↑
철강	· 2024년 세계 경제 성장 기조	✧
	· 중국 부동산 경기 안정화 불확실성	↑
	· 주요국의 인플레 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기조	↑
	·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성장세	✧
정유	·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따른 항공유 수요 완전 정상화	✧
	· 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용 수요 감소	↑
	·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지속	↑
	·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지속적 수요 증가	✧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에 따른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의 감소 추세로의 전환	↑
석유화학	· 주요 수출대상국 경제성장을 제한적 성장	✧
	· 고유가, 고에너지가격(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 기저효과	↑
섬유	·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의류 및 산자용 섬유 수요 부진	↑
	·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화에 따른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정보통신기기	· 러-우 사태, 이스라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잠재	↑
	· 프리미엄 제품(AI폰, 폴더블폰 등) 중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요 개선 전망	✧
	· 세계 PC 수요 개선(AI PC, 기업용·교육용 PC, 게임용 PC 교체 수요 등) 전망	✧
	· 초거대 AI 수요 급증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회복 및 AI 서버 시장 성장	✧✧
	· 소비자용 SSD 수요(거시여건 개선, PC 재고량 개선 등) 회복	✧✧
	·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지속 가능성 상존	↑
가전	· 선진권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다소 둔화	↑
	·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소비심리 회복과 신흥권 경제성장 호조	✧
	· 국내 기업이 선도하는 프리미엄(친환경·고효율·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	✧
	· 우-러, 이-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지속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반도체	·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소비 회복	❖
	·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
	·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
	·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협 지속	↑
디스플레이	· 주요 수요 제품 교체 주기 진입으로 교체수요 확대	❖
	· 세계 경기 회복으로 전자제품 수요 확대	❖
	·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이차전지	· 전기차 등 이차전지 수요부문의 시장규모 성장세 둔화	↑
	· 해외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
	· 세계 경제산업의 친환경화 추세 지속	❖
바이오헬스	· 혁신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경쟁 가시화	❖❖
	· 비만치료제 글로벌 수요 폭증	❖❖
	· 환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경기 위축	↑
	· 이스라엘-중동발(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4년 13대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는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 내재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 만 중국의 경우 경기 하방압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할 전망

- 미국 시장에서는 인프라 구축·공급망 내재화(기계), 대기수요(자동차), 프리미엄 제품수요(통신기기 및 가전), IRA 제도 시행(이차전지), 바이오시밀러 친화정책(바이오헬스)의 영향으로 관련 산업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
- 유럽 시장에서는 프리미엄폰 교체수요 증가로 정보통신기기 수출의 확대가 예상되고, 기초의약품 부족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기차 침투율 증가에 따른 보조금 축소로 이차전지 수출은 감소 전망
- 중국 시장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발(發) 경기하방 압력으로 일반기계, 석유화학, 섬유 등에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나 ICT 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전망

〈표 2-2〉 2024년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

	국가	비중 ¹⁾	전망	국가	비중	전망	국가	비중	전망
자동차	미국	40.6	▲	EU	19.8	▲	중국	1.6	▲
일반기계	미국	24.8	▲	중국	17.0	↑	EU	13.9	▲
철강	북미	11.4	▲	EU, 러시아	14.0	▲	중국	8.5	▲
정유	미국	11.6	▲	중국	8.6	▲	아시아 (중국 제외)	70.0	▲
석유화학	중국	50.0	↑	아세안	15.0	▲	기타	35.0	▲
섬유	베트남	20.4	▲	미국	13.6	▲	중국	12.6	▲
정보통신기기	중국	35.8	▲	미국	18.6	▲▲	EU	13.5	▲
가전	미국	50.7	▲	일본	6.7	▲	중국	5.2	▲
반도체	중국	37.6	▲	홍콩	17.0	▲▲	베트남	12.9	▲▲▲
디스플레이	베트남	66.3	▲	중국	22.8	▲			
이차전지	미국	46.5	▲	독일	6.3	↑	중국	5.6	▲
바이오헬스	미국	14.4	▲	유럽 5개국	24.8	▲	일본	10.7	▲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해외 생산 전망) 2024년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은 산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세계 수요 대응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 제외 대부분 국가에서 확대될 전망

- 자동차는 주요국에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전기차 전환이 진전되면서 미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동유럽 및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해외 생산이 증가할 전망
- 조선은 국내 생산능력 부족과 해외 인도물량 증가로 중국 블록공장과 베트남 조선소의 생산이 확대될 전망
- 일반기계 해외 생산은 미국, 인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주요 광물 및 원자재 채굴에 따른 건설기계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확대될 전망
- 섬유산업은 탈중국 현상에 의한 반사이익 기대와 가격경쟁력 제고 목적의 해외 생산이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
- 가전 산업은 미국, 베트남 등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 생산 확대,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 영향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해외 생산이 확대될 전망
- 반도체는 국내외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와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미국에서의 파운드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공장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생산량 증가는 제한적

- 디스플레이는 TV 수요 회복에 따라 중국 광저우 현지생산이 증가할 전망
- 이차전지는 미국과 유럽 해외 생산거점에 대한 신증설 투자 확대와 기존 해외 공장의 수율 개선에 따라 해외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바이오헬스는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신규 생산공장 설립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확장함에 따라 대다수 국가에서 해외 생산이 증가할 전망

〈표 2-3〉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해외 생산기지(생산 전망)
자동차	중국(◎) 미국(◎) 브라질/멕시코(◎) 러시아/체코/슬로바키아(◎) 튀르키예(◎) 인도(◎)
조선	중국(◎) 베트남(◎◎)
일반기계	중국(↑) 미국(◎) 인도(◎) 중남미(◎)
철강	유럽(●) 아세안(◎) 북중미(◎) 중국(●)
석유화학	중국(◎) 아세안(◎) 미국(●)
섬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가전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중국(●) 미국(◎)
반도체	중국(◎) 미국(◎◎)
디스플레이	중국(◎)
이차전지	미국(◎◎) 유럽(◎) 중국(◎)
바이오헬스	미국(◎) 중국(◎) 동남아(◎◎) 이스라엘(●)

주: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국내 여건 변화: 민간 소비는 부정적이나 투자수요 회복, 산업전환 추세 등 긍정적 여건 존재

○ (국내 수요 여건)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는 부정적 수요 여건이 우세하나 디지털 전환 확산과 설비투자 증가는 IT신산업군과 소재산업군 수요 확대에 긍정적 요인

-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의 민간 소비심리 위축 요인이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가전, 섬유의류 등의 최종재 수요를 제약할 것으로 보이나,

- IC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영향, 통화 긴축의 완화 가능성에 따른 투자 확대는 소재 및 IT산업군 수요에 긍정적인 여건이며,
-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증가, 친환경·고기능성 제품 선호의 지속 역시 국내 내수에 긍정적인 여건

〈표 2-4〉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	↑
	• 차량 구매 할부금융 비용 증가	↑
조선	• 해운 시황의 더딘 개선과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 지속	↑
	• 높은 금리 및 금융 불안으로 인한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
	• 주요 우량조선사의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고선가에 선별 수주 지속	↑
	•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 확대	◎
일반기계	•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감소	↑
	• 세계 성장을 둔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산업 회복세 제약	↑
	• 2024년 하반기 설비·건설투자 증가	◎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첨단 기계·장비, 친환경 고효율 기기 투자수요 지속	◎
철강	• 설비투자 등 국내 거시경제 지표	◎
	• 조선용 수요 견조	◎
	• 자동차용 수요 둔화	↑
	•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
정유	•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및 가동률 상향조정에 따른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	◎
	• 엔데믹에 따른 항공유 및 휘발유 수요 확대	◎
	• 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용 및 가정용 수요 감소	↑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연비효율화	↑
석유화학	• 국내 경제 성장을 증가(설비투자, 건설)	◎
	• 국내 수요산업의 경기 회복	◎
	• 기저효과	◎
	• 제품가격 하락	↑
섬유	•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 및 고금리 등 소비심리 위축	↑
	• 국내 제조활동 둔화에 따른 산업용섬유 수요 둔화	↑
	• 경기 부진에 따른 불황형 소비 확대로 중저가 의류 소비 증가	◎
	•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정보통신기기	·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
	· 프리미엄 제품 가격 및 통신비 부담	↑
	· 스마트폰 신제품 중심의 교체 수요 증가	❀❀
	·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증가	❀❀
가전	· 소비심리 위축(고금리 및 고물가 유지, 부동산 시장 부진)	↑
	· 경제성장을 회복세 및 기저효과	❀
	· 프리미엄·신가전 제품 수요 증가	❀
반도체	· PC 등 IT 기기 글로벌 수요 회복	❀
	· 국내 ICT 산업 부진	↑
	· AI, 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신산업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진척	❀❀
디스플레이	·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면적 확대	❀
	· LCD 생산 축소로 인한 소재 부품 축소	↑
	· OLED 패널 고도화에 따른 소재 부품 고부가화	❀
이차전지	· 국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 추세	↑↑
	·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	❀
바이오헬스	· 첨단바이오의약품·디지털 치료기기 처방	↑
	· 중입자치료기, 방사성의약품(RPT) 등 차세대 항암치료 부상	❀
	· 비만치료제 및 당뇨병 치료제 수요 확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공급능력 여건)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화학,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의 공급 능력 증가가 예상되며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 대응 및 시장점유율 강화 목적으로 조선, 철강, 섬유, 반도체 분야의 투자 증가가 예상

- 자동차는 중견 완성차업체들의 신규 모델 투입과 공급망 회복으로 국내 공급능력 증가 전망
- 조선은 생산 증가 대응 설비투자 확대, 자동화 및 스마트 설비 확대로 공급능력 증가가 예상되며 제약요인이었던 인력 부족도 일부 개선될 전망
- 철강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전기로 확대, 전기차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이차전지파 우치용 도금강판 등 친환경 유망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진행될 전망
- 석유화학은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 완료로 공급역량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섬유산업은 화학섬유산업의 범용제품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슈퍼섬유 관련 대규모 설비 증설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정보통신기기, 가전은 해외 생산 구조로 국내 공급능력의 변화는 낮은 편이나 국내 대표적 생활가전 중견그룹 부진이 국내 공급능력에 부정적 영향 요인
- 반도체는 2024년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따라 시장 점유율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증가할 전망
 - 메모리반도체는 미세화와 적층화를 위한 신규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HBM 등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 확대 예상
 - 파운드리 분야 역시 미세공정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텔(미), 라피더스(일) 등 신규 시장 진입기업의 등장에 따라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는 LCD 감산으로 인한 생산 규모 축소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며, 대형 OLED TV 생산 규모 확대로 공급능력의 지속 상승 예상
- 이차전지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 가동 본격화, 기존 생산라인 효율화·합리화 투자 확대 등으로 2024년 국내 공급능력은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
- 바이오헬스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의 R&D 역량 개선과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둔 생산시설 확충으로 국내 공급능력 증가 전망

〈표 2-5〉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해소	❖
	· 중견 완성차업체 실적 부진 만회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모델 투입	❖
조선	· 급격히 증가하는 건조 물량에 대응한 설비투자 확대	❖❖
	· 인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기술 및 설비 확대	❖
	· 외국인과 내국인 유입으로 기능인력의 심각한 부족은 완화되더라도 일부 영향 지속	↑
	· 외국인, 비숙련 인력의 속련 형성 시간 필요 및 안전 강화 노력 영향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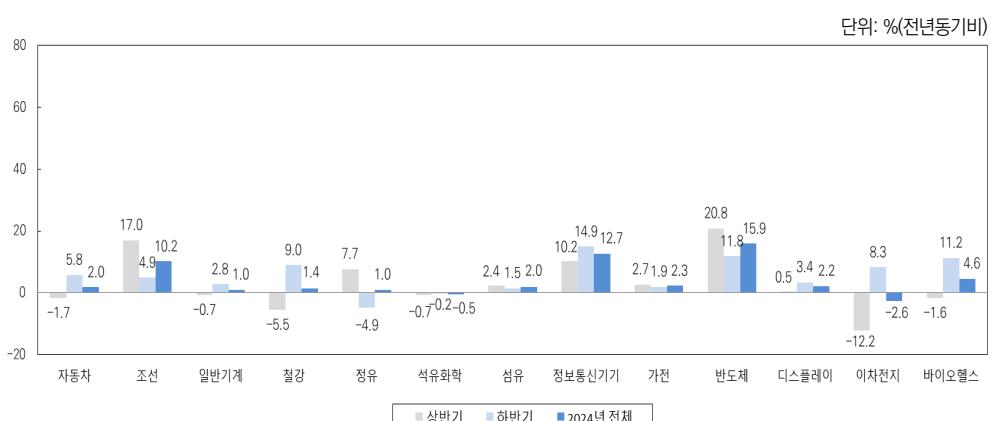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일반기계	· 내수 회복 및 재고 누적 안정세로 생산능력 회복 전망	❖
	· 자동화 및 친환경 설비 관련 투자 지속	❖
철강	· 기업 수익성 악화	↑
	· 제품 및 공정 전환 위한 신증설	❖
정유	·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	❖
	· 정제설비의 효율 개선	❖
석유화학	· (국내외) 생산시설 신증설 완료	❖
	· 생산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
	· 제품 스프레드 위축	↑
섬유	· 첨단소재 설비투자 확대	❖
	· 생산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섬유 경기 불황에 따른 감산 및 폐업 등 공급능력 감소	↑↑
	·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	↑
정보통신기기	· 수요 회복으로 해외 생산 공장 가동률 상승 전망	❖❖
	· 베트남 외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글로벌 공급 역량 안정화	❖
	· 기업용 및 소비자용 SSD 신제품을 출시하며 공급 역량을 강화	❖
	· 해외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 물량 축소	↑
가전	· 베트남 등 신흥권 경제 회복과 미국 세탁기 공장 증설로 해외 생산 확대	↑
	· 국내 생활가전 중견그룹의 사업 부진	↑
반도체	· 미세공정 및 적층화 진전	❖
	· DDR5 등 메모리반도체 신제품 보급 확산	❖
디스플레이	· LCD 생산 규모 축소 지속	↑
	· 대형 OLED 양산 규모 확대	❖
이차전지	· 원통형 배터리 공장 신증설	❖❖
	· 원격지원, 제조자동화, 물류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
	· 주요국의 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투자 여력의 해외 집중화	↑
바이오헬스	·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둔 생산시설 확충	❖❖
	· 제약·바이오기업의 R&D 역량 개선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3. 2024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글로벌 ICT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이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 전망
- 2024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 경제의 제한적 성장 속에서도 석유화학(-0.5%), 이차전지(-2.6%)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의 수출이 확대되어 2023년(-10.5%)보다 5.2% 증가한 5,04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13대 주력산업 수출액: (2022) 5,365억 달러 → (2023) 4,799억 달러 → (2024) 5,047억 달러
 - 13대 주력산업 수출 비중: (2022) 78.5% → (2023) 76.3% → (2024) 76.0%
- (기계산업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확대로 일반기계(1.0%)와 자동차(2.0%)의 수출 증가세 지속, 조선(10.2%)은 고가 선박의 인도 증가로 두 자릿수 성장세 지속이 예상,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2.7% 증가 전망
 - 자동차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 자동차 시장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출시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과 중견업체들의 해외시장 공략 강화와 같은 긍정적 요인 우세로 전년 대비 2.0% 증가 전망

〈그림 2-5〉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단, 중국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전략을 강화 중인 것은 위협 요인
 - 조선 수출은 2021년 고선가에서 수주한 대량의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을 2024년에 인도하면서 전년 대비 10.2% 증가 예상
 - 일반기계 수출은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미국, 유럽 등)과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사업 활성화에 따른 건설중장비, 산업기계 등 일반기계 완제품 및 부품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0%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수요 증가, 첨단소재 수출 확대 및 기저효과로 철강(1.4%), 섬유(2.0%) 및 정유(1.0%)의 수출 증가 예상, 석유화학(-0.5%)의 경우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횡보세가 나타나 산업군 전체로는 0.7% 증가 전망
- 철강 수출은 아세안 내 공급능력 확대 및 중국의 내수 부진 등의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도 등 신흥국 성장, 자동차용 판재류 수출 증가 및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 전망
 - 정유 수출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의한 수출단가 하락 속에서도 석유화학용 중심의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확대와 비OECD 국가의 견고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 예상
 - 석유화학 수출은 국내 공급역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대상국 내 수입수요 둔화와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에 비해 0.5% 감소 예상
 - 섬유 수출은 의류 소비 지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첨단소재 수출 비중 증가, 한류로 인한 선호 확대, 전년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2.0% 증가 전망
- 단, 이-팹 전쟁 장기화 시 2023년 유일하게 전년비 10% 정도 상승하였던 대중동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차도르직물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IT신산업군) 글로벌 IT 제품 및 혁신의약품 수요의 증가와 기저효과로 반도체(15.9%), 정보통신기기(12.7%), 바이오헬스(4.6%)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이 증가, 산업군 전체로는 11.4%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수출 확대를 견인하나 이차전지는 소폭 감소(-2.6%)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SSD,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12.7% 증가 전망
 - 챗GPT의 생성형 AI 수요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및 서버 투자가 회복되며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22.5%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전 수출은 주요국 소비심리 회복과 신흥권의 경제성장 호조, 친환경·고효율 제품 및 스마트홈 시장 확대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으로 전년비 2.3% 증가 전망
- 반도체 수출은 DDR5를 비롯하여 AI용 서버에 채용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필수 수요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 발생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큰 폭의 감소 (-25.6%)에서 2024년은 15.9%의 증가로 전환 예상
- 디스플레이 수출은 주요 수요기업의 태블릿 OLED 출시, 패널의 고부가화로 인한 단가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비 2.2% 증가 전망
 - 중국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에서도 중국 OLED 패널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요인
- 이차전지 수출은 글로벌 OEM사의 전기차 생산목표 하향 조정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 전망
 - 미국 및 유럽에서 신증설된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물량 일부가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미국향 수출 증가세 유지, 전년 대비 늘어난 국내 생산능력은 수출 증가에 긍정적 요인
- 바이오헬스는 이연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의 출시와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의 위탁생산 능력 증가와 해외 영업망 구축 등의 긍정적 요인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며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대형제약사의 자체 생산 확대, 위탁생산 경쟁사와의 가격경쟁 심화 및 원료의 약품의 해외 조달 차질 등은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

〈표 2-6〉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출시장 수요 견조한 성장 예상 국내업체 브랜드 이미지 제고 HEV, BEV, 고급차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 일본업체 경쟁우위 차종인 HEV 수요 증가 국내업체 해외 생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유럽시장 수요 견조한 성장세와 수출단가 상승 등의 요인 등 긍정적 요인에도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로 물량은 소폭 감소 예상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이후 대량 수주한 물량의 인도 고가의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LPG 운반선 인도 증가 2021년 이후 선가 상승한 수주물량의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능력(기능인력) 증가 한계 및 비숙련공의 숙련 형성 시간 필요와 안전 강화 노력 해운경기의 더딘 회복, 일부 조선사 경영안정화 문제로 인한 인도 연기 및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이후 높은 선가에서 대량 수주한 물량의 본격 인도로 증가하지만, 생산능력 한계에 따른 영향이 지속 순연된 물량의 빠른 캐치업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할 전망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중동, 중남미 등 주요 수출국 건설 인프라 투자 지속 국내 기업의 해외플랜트, EPC 프로젝트 수주 호조 수요산업(자동차) 해외 생산공장 설립에 따른 생산장비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우 및 이-팔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통화 긴축기조 장기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대중국 수출 부진 지속 대러시아 수출통제(건설기계)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학적 리스크, 대중국 수출 부진의 감소 요인이 존재하지만,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의 긍정적 요인 우세로 소폭의 수출 증가세(+1%)를 이어갈 전망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감산 중국의 경기부양책 인도, 아세안의 고성장, 내수 확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세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미국의 내수둔화 아세안 지역의 공급과잉 무역장벽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인도 등 신흥국 중심으로의 수출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 요인으로 소폭 개선 전망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화학용 중심의 석유제품 수요 확대 비OECD 국가의 수요 증가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유가 하락 OECD 국가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아시아 역내 수출경쟁 심화에 따른 정제 마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량은 증가하겠지만 유가 및 정제마진 감소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보수 종료로 국내 공급역량 확대 가동률 평년 수준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시장 공급 과잉에 의한 수출단가 하락 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국산제품 수입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량 소폭 증가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 횡보(회복국면 시작)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퍼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산 의류 소비 증가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국 통화 긴축 및 세계 경기 성장세둔화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소비 둔화 러-우 사태, 이-팔 전쟁 등 불확실성 상존 글로벌 산업생산 부진으로 산업용섬유 수요 위축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 수출 대체 수요 위축에 따른 경쟁국 간 글로벌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섬유 수요 부진 불구하고, 기저효과 및 고성능 섬유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SSD 수요 개선(AI서버 수요 등) 신제품(AI 기능, 카메라 강화 등) 수요 증가 SSD 단가 상승 풀더블폰(고급형·보급형) 시장 성장 2023년 부진의 기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 저하 해외 생산(위탁생산) 확대 스마트폰 교체주기 연장(경기 침체, 제품 상향평준화), 중고폰 시장 성장 스마트폰 및 PC시장 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저효과와 함께, SSD 단가 상승 및 수요가 개선되면서 증가 전망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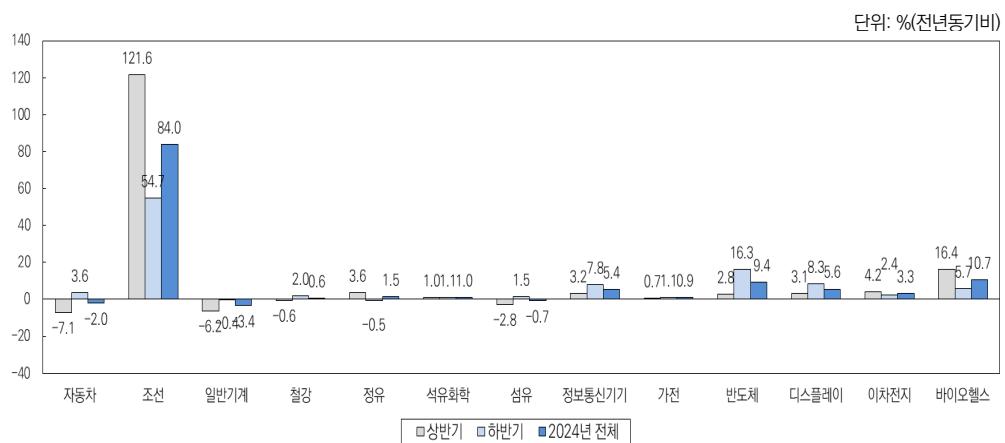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수요 회복 베트남 등 신흥권 경제성장을 상승 국내가 경쟁우위를 확보한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로 교체수요 증가 및 단기 상승 2023년 상반기 수요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일본 등 선진권 경제성장을 둔화 미국 세탁기 공장 증설 및 아세안 경기 호조로 해외 생산 증가 미국, 유럽 등 선진권에서 중국 브랜드와 경쟁 심화(중국의 점유율 증가)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이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권 경제성장 둔화와 해외 생산 증가로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이나, 세계 수요 회복과 고효율·스마트 제품 보급 확대로 수출은 증가 요인이 다소 우세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판매 증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교체 시기 도래 전기 전자 제품의 필수 교체 수요 발생 AI를 비롯한 신산업 및 신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으로 소비심리 회복 둔화 기존 주요 수요산업인 PC,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 및 최대 반도체 수입 국가인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가수요 영향으로 IT 제품의 교체주기 연장 대규모 전쟁 동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기·전자제품의 수요가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아 우리 반도체 수출 회복도 원만하게 진행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널 단가 상승 태블릿 OLED 채택률 상승 스마트폰 교체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패널 기업 경쟁력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널 단가 상승과 OLED 채택 제품 확대로 인하여 수출 상승 전망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수출국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 증가세 유지 국내 생산능력 상향 조정(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본격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주요 OEM사의 전기차 생산목표가 하향 조정에 따른 배터리 수요 하락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물량 일부가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전기차 성장 둔화, 해외 생산물량으로의 대체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이차전지 수출 하락 전망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시장 바이오시밀러 처방 증가 지연되었던 후기임상시험·인허가 결과 발표로 위탁생산 수주 증가 국내 위탁생산(CMO) 공급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간 가격경쟁 심화 원료의약품 조달 차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현지 직접판매 방식을 통해 의약품 수출 증가

□ 내수: ICT 신제품 출시와 수출용 중간재 수요 증가로 IT신산업군의 내수 회복 전망, 소재산업군은 하반기 경제지표 개선으로 소폭 성장 예상

-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섬유는 상반기 감소에서 하반기 증가로 전환, IT 산업군은 하반기 내수 증가폭 확대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84%)은 큰 폭 증가세 유지, 일반기계(-3.4%)는 설비투자 증가로 감소세 둔화되나 자동차(-2.0%)는 누적된 이연 수요 실현 및 구매여건 악화로 감소 전환
 - 자동차 내수는 누적된 이연수요 실현과 차량 구매여건 등이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 대비 2.0% 감소한 168만 대 수준에 그칠 전망

- 전기차 등 기술 전환기에 일부 차량 교체가 필요한 보수적 성향의 소비자들은 충전이나 안전 문제 등이 해소된 후로 차량 구매를 지연하는 경향이 있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조선 내수는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대량의 선박 인도로 2년 연속 큰 폭으로(84%)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 내수는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수요산업 경기 회복 및 설비·건설 투자 확대로 전년(-12.1%) 대비 감소세 완화 전망

〈그림 2-6〉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소재산업군) 하반기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철강(0.6%), 정유(1.5%), 석유화학(1%)에서 내수 성장이 예상, 단,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민간소비 위축세가 성장을 제약
 - 철강 내수는 하반기 설비투자의 소폭 회복과 조선용 수요의 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둔화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전년 대비 0.6%의 제한적 증가에 그칠 전망
 - 정유 내수는 가정용 및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의 감소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설비 운영 및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향조정에 따른 나프타 및 LPG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1.5% 증가 전망

- 석유화학 내수는 민간 소비 위축에도 불구, 반도체 등 주요 전방산업의 경기가 소폭 개선되며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섬유산업 내수는 전년 상반기 높은 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비부진이 내수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0.7% 감소 전망

○ (IT신산업군) 반도체(9.4%), 정보통신기기(5.4%)의 내수가 회복되고 바이오헬스(10.7%)의 고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이차전지(3.3%)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년(68.8%)에 비해 소폭의 증가율 기록 전망

-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경기 둔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출시 예정인 국산·외산 스마트폰 및 노트북PC 신제품 교체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5.4% 증가 예상
- 가전 내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내수 감소세 완화, 고효율 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0.9% 증가 전망
 -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에 따른 관련 제품 수요 증가와 의류관리기, 음식물처리기, 이동식 TV, 신발관리기 등 다양한 신가전 출시도 내수에 긍정적 요인
- 반도체 내수는 주요 반도체 기업의 감산 효과에 따른 반도체 재고 안정세와 최근 부진세였던 주요 시장인 SSD 등 컴퓨터 부분품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10.6%)의 감소세에서 증가(9.4%)로 전환
- 디스플레이 내수는 국내 LCD 감산이 지속되는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패널 기업의 OLED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소재 부품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5.6% 증가 전망
- 이차전지 내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년(68.8%)에 비해 소폭의 증가율(3.3%) 기록 전망
 - 전기차 국비보조금 규모 축소는 부정적 요인이나 2024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용 국산 EV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수요 확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바이오헬스 내수는 항암 치료관련 의약품·의료기기, 방역용품 수요 증가로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에도 전년 대비 10% 내외 증가 전망

〈표 2-7〉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생산 정상화에 따른 원활한 공급 전기차 등 활발한 신모델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기술전환기 교체 수요 차량 구매 지연 누적된 차량 구매 대기수요 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적된 대기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기둔화 지속으로 차량 구매 수요 위축되는 등 부정적 요인 우세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인수 증가 중국으로부터 벌크선, PCC, 폐리선 등 선박 인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조선사의 생산능력(기능인력) 증가 한계 및 비숙련공의 숙련 형성 시간과 안전 강화 노력으로 생산 지연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대비 국내로부터 고부가가치 선박, 해외로부터 범용 선박의 인수가 증가하면서 내수 물량 증가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산업 경기 회복세(하반기) 설비·건설투자 증가 전환(하반기) 자동화 및 친환경화에 따른 관련 설비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설비투자 지연 및 축소 주택 가격 하락 및 민간 건설경기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산업의 점진적 경기 회복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로 감소세 완화 전망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설비투자 개선에 따른 관련 철강재 수요 증가 조선용 후판 수요 증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자동차 생산 부진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거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설비투자 및 조선용 수요 견조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되나 부동산 및 거시경기 불확실성으로 증가폭은 매우 제한적 전망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및 가동률 상향 조정에 따른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침체로 인한 가정용 및 산업용 수요 감소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의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 수요 감소가 지속되겠지만 석유화학용 수요 확대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경제성장을 2% 초반대 성장 전방산업(자동차, IT) 경기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소비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진적 경기 회복 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 정상화 및 외부 활동 증가에 의한 의류 수요 증가 온오프라인 거래 동반 확대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경기 둔화, 금리 상승,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증가세 둔화 수요산업의 생산 부진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및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섬유 내수 소폭 감소
정보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스마트폰 교체수요 증가 기업용·교육용·게임용 PC 교체수요 기업의 디지털 전환(서버 등) 투자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국내 PC·스마트폰 시장 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위축 요인이 상존하나, 신제품 수요 및 기업 투자 회복에 힘입어 증가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경제성장을과 소비심리 회복 친환경·고효율 제품과 스마트홈 시장 확산으로 교체수요 증가 및 단기 성장 다양한 신가전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수요 회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물가 및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소비 여건 개선은 제한적이나, 경제성장을 회복과 고효율·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로 내수는 증가 요인이 다소 우세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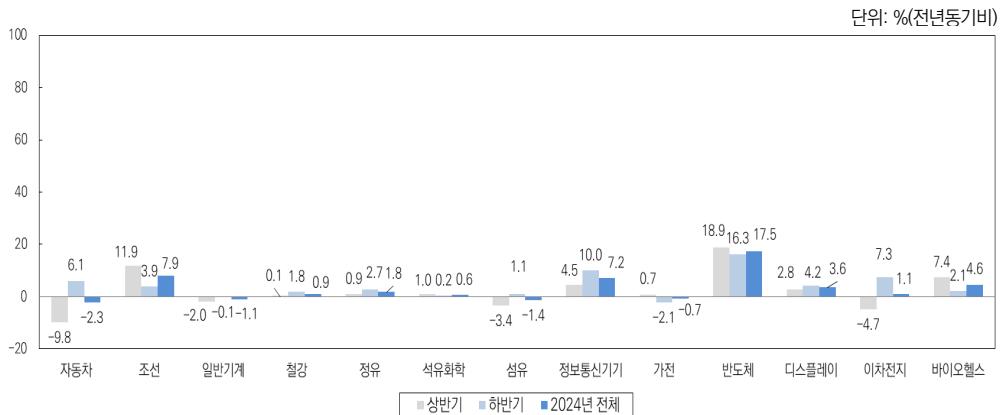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D 등 컴퓨터 부품용 수요 증가 AI, IoT 등 첨단산업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소비 심리 개선 지연 IT 기기 교체 주기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품에 채용되는 수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 수출 확대로 인한 소재 부품 상승 패널 고부가화에 따른 소재 부품 단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소재 부품 축소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 설비 가동률로 인한 소재 부품 수요 상승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상승세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대체계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국비보조금 감소(2023년 최대 500만 원 → 2024년 최대 400만 원)에 따른 국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이차전지 내수는 상승 기조는 유지하되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항암치료 기기·의약품 수요 증가 비만치료제 수요 급증 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위생용품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신·출산 관련 의약품 소비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양 및 만성질환 관련 기술 진보와 혁신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바이오헬스 내수 증가

□ 생산: 수출과 내수의 회복으로 IT신산업군의 생산 확대 기대, 소재산업군은 제한적 증가, 기계산업군은 소폭 감소 예상

○ (기계산업군)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자동차(-2.3%)는 감소 전망, 일반기계(-1.1%) 생산은 국내 수요 회복으로 감소폭 둔화, 조선(7.9%)은 수주잔량 물량 인도에 따라 증가 전망

- 자동차 생산은 중견업체들의 가동률 향상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차량 수요 감소,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효과 및 해외 생산 확대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403만 대를 기록할 전망
- 조선은 2024년 인도 예정인 물량이 1,399만 CGT(수주 잔량 기준)이나, 선포 조정·인도 연기에 따라 생산이 전년 대비 7.9% 증가한 998만 CGT 수준에 그칠 전망
-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1.0%)를 유지하고, 내수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6.8%) 대비 감소폭이 축소된 -1.1% 증가율 전망

〈그림 2-7〉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소재산업군) 수요 여건 개선과 가동률 정상화로 철강(0.9%), 정유(1.8%), 석유화학(0.6%)에서 소폭 증가 예상, 섬유(-1.4%)는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감소 전망

- 철강생산은 2023년 일부 생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던 아연도강판 및 STS열연 생산의 소폭 증가와 상반기 건설수요 개선에 따른 봉형강류 생산 소폭 확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7,072만 3,000톤 기록 전망
- 정유는 수출 및 내수 동반 증가와 글로벌 경제마진 호조세 지속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이 회복되며 전년 대비 1.8%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내수와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겠으나 재고 처리 문제 등으로 증가폭은 0.6%로 제한될 전망
- 섬유 생산은 첨단소재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1.4% 감소 전망

- (IT신산업군) 국내외 IT 수요 회복으로 정보통신기기(7.2%), 반도체(17.5%), 디스플레이(3.6%), 바이오헬스(4.6%)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 가전(-0.7%)은 감소하고 수출용 배터리 생산 감소로 이차전지(1.1%)는 소폭 증가 기록 예상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수출과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7.2% 증가로 전환 전

망, 국내업체들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주요 제품의 해외 생산 및 중국 위탁생산 확대는 국내 생산에 부정적 요인

- 가전 생산은 수출·내수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유인이 증가하고 국내 중견그룹(대유위니아)의 생활가전 계열사 부진에 따라 0.7% 감소 전망
- 반도체 생산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HBM 등 첨단제품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27.0%)의 감소에서 큰 폭 증가(17.5%)로 전환 예상
- 디스플레이 생산은 LCD 감산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대형 OLED 양산 확대 및 OLED 적용 제품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로 3.6% 증가 전망
- 이차전지 생산은 원통형 배터리 공장의 신규 가동으로 하반기에는 증가할 전망이나 상반기 수출 감소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1.1% 소폭 증가 예상
- 바이오헬스 생산은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4.6% 증가 전망이나 국내 약가 조정 결과에 따른 생산 위축 가능성 존재
-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개정안이 2024년 적용될 예정, 제품단가 하락기조가 강화되면 R&D 위축 및 생산 유인이 감소

〈표 2-8〉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정상화 • GM, KG 모빌리티 등 중견업체 신규 모델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 •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해외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업체 가동률 향상에도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물량 감소로 생산 부진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이후 대량 수주물량의 본격 인도 • 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LPG운반선 인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능력(기능인력) 증가 한계 및 비숙련공의 숙련 형성 시간 필요, 안전 확보 노력 등으로 생산 지연 우려 • 해운경기의 더딘 회복, 일부 조선사 경영안정화 문제로 인한 인도 연기 및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이후 대량 수주한 물량의 본격 인도로 증가하지만, 생산능력 한계에 따른 영향이 지속 • 순연된 물량의 빠른 캐치업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할 전망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건설·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 가능성 • 민간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증가세 및 내수 개선으로 감소세 완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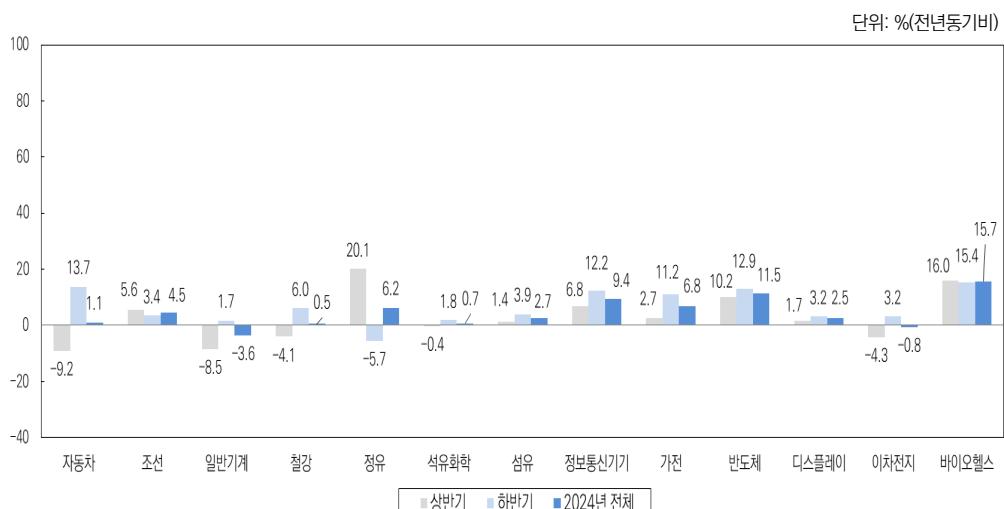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량 소폭 증가 건설용 봉형강류 수요 소폭 증가 유망 수요 대응 신제품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과 내수 성장으로 소폭 증가 예상, 수입재 확대는 증가세 제약 예상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정제마진 호조세 지속 OECD 국가로의 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 및 가정용 석유제품 내수 부진 중국 및 인도 등 주요 경쟁국과의 아시아 역내 수출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및 내수 동반 상승과 글로벌 정제마진 강세 지속에 따른 생산량 증가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 상향 조정 내수 개선 수출물량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 우선 처리 부담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량 소폭 증가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냉감기능성 소재, 스펜덱스 등 고기능성 섬유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증가세 부진 및 내수 감소 수입 원자재가 상승 등 수익성 악화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폐업 등 국내 생산 감소 해외 중저가 섬유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생산 감소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및 내수 증가 신제품 및 부품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제품 해외생산 및 부품 현지조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품 수요 및 수출 증가로 생산 확대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증가, 내수 회복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 증가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 설비 효율화 및 스마트화에 따른 생산성 및 생산능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회복의 많은 부분을 수입이 차지 원자재,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수요 회복으로 해외 생산 증가 활발 국내 설비투자 감소세 국내 증건 그룹사 실적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과 내수가 증가로 전환하나, 해외 생산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 국내 생산은 감소 요인이 우세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HBM 등 첨단 제품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등 돌발 상황 이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어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OLED 생산 확대 OLED 적용 제품 확대로 인한 가동률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 전환으로 인한 LCD 감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OLED 및 IT 용 제품 출시 확대로 생산 증가 전망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기업(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 2024년 하반기 가동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등 수요산업의 성장둔화로 수출용 배터리 생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하지만 상반기는 수출 위축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1.1% 수준에 머물 전망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 제약사 위탁생산 수주계약 체결 보톡스, 바이오시밀러 생산 증가 첨단의약품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정치·경제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 시 생산 위축 가능 원료의약품 조달 차질 국내 약가조정 개정안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시밀러, 보톡스, 임플란트 등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 지속

□ 수입: 내수 회복이 예상되는 IT신산업군의 수입 확대로 전년 대비 5.8%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조선은 해외 기자재 수입으로 증가하고, 자동차는 고급차 수요 확대로 증가 하나 수입규모가 큰 일반기계의 감소추세로 인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1.3% 감소 전망
 - 자동차 수입은 고급 수입차 수요 증가와 전년 수입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1.1% 증가를 기록할 전망, 내수점유율은 17.6%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높아질 전망
 - 조선 수입은 해외 건조 선박 인수와 해외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가스운반선 생산 증가, 해외로부터 선체·해양플랜트 블록 등의 수입 확대로 4.5% 증가한 26억 달러 예상
 - 일반기계 수입은 하반기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의 영향으로 전년(-4.3%) 대비 감소세 완화(-3.6%) 전망
- (소재산업군)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입과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로 정유와 섬유 수입 증가 전망, 석유화학과 철강은 2023년과 비슷할 전망
 - 철강 수입 물량은 전년도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역기저영향으로 0.4% 감소가 예상되나 수입단가의 소폭 상승에 따라 수입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 전망

〈그림 2-8〉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정유 수입은 석유화학용 나프타 및 LPG의 수입 확대와 전년 수입 감소의 기저효과로 6.2% 증가 예상
 - 석유화학 수입은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범용제품 수입량 규모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0.7% 소폭 증가 전망
 - 섬유 수입은 내수 경기 부진으로 증가세는 둔화하나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요 확대로 2.7% 증가 전망
- (IT신산업군) IT신산업군의 수입은 국내 ICT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내수 확대,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국내 수출용 중간재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4% 증가 예상
-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외산 신규 스마트폰 및 노트북PC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저 효과가 작용하면서 2023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전 수입은 내수 회복과 고가의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역수입 확대로 전년 대비 6.8% 증가 전망
 - 반도체 수입은 수출을 위한 웨이퍼 단계의 수입과 AI용 반도체를 비롯한 고가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11.5%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 수입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와 패널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 전망
 - 이차전지 수입은 전기차 내수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기조가 유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바이오헬스 수입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처방이 확대되고,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첨단 정밀의료기기 설치수요 증가에 따라 15.7% 큰 폭 증가 예상

〈표 2-9〉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차 수요 확대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AS 및 OEM 부품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원성차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자동차 할부 금리 인상에 따른 차량 구매비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금리에 따른 구매비용 상승에도 고급차 시장 확대와 AS 부품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 우세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가스 운반선 생산 증가 해외로부터 선박 및 해양플랜트 블록의 반입 증가 국내 해운사가 해외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의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산업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중고 선박 수입 감소 기자재 국산화 및 국산 기자재 탑재 노력을 통한 수입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해운사의 해외 건조 선박 도입 확대, 기자재 수입 증가에도 환경규제 강화로 중고선 수입이 많지 않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전반의 경기 회복세(하반기) 자동화 기기 및 친환경 설비류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회복세 미약 하반기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경기 회복으로 감소세 완화 전망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감산 지연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 수입재 가격경쟁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실적 증가의 기저효과 국내 시장의 적극적 수입재 대응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내수의 제한적 성장과 기저효과로 물량은 소폭 감소, 단가 상승으로 금액은 소폭 증가 전망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완료 및 가동률 상향조정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확대 전년도 상반기 기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유사의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조정에 따른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자급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수입 물량 확대로 수입액 증가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경기 소폭 회복 범용제품 중심 수입규모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과잉에 의한 수입단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량, 수입액 증가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 증가폭 제한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생산제품 역수입 증가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 중국 중저가 온라인 직구 확대 국내 공급이 감소한 PF 일반사 수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 감소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입수요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은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 수입단가 상승으로 증가
정보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산 신제품 수요 증가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 저하 제품 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침체 영향이 있으나, 신제품 교체수요 증가 및 기저효과로 증가 전망
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회복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국내 브랜드 제품의 역수입 증가 중국 제품의 품질 향상, 미국 빅테크의 국내 스마트홈 시장진입 국내 중견 그룹사 부진에 따른 해외 중저가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브랜드 경쟁우위 지속 국내 스마트홈 플랫폼 확산에 따른 국내 브랜드의 내수시장 지배력 강화 고환율 및 고유가로 인한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브랜드가 경쟁우위를 유지하나 내수 회복과 해외 생산 증가(역수입 증가), 해외 고가 브랜드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요인이 우세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가공한 웨이퍼 및 최종 제품 수입 증가 · AI 서버 등 고가의 시스템반도체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 둔화 및 R&D 투자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중간단계 혹은 최종 제품의 해외 공장으로부터 수입이 다소 증가 · 국내 경기 둔화와 더불어 R&D 투자 축소로 반도체 수입도 다소 감소하겠지만 고가의 제품 수입은 확대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패널 수요 확대 · 패널 단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감산으로 인한 재수입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단가 상승으로 소폭 상승 전망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기차 수출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수출용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수입(대부분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중국 공장으로부터의 조달물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효과(2023년 수입 증가율: 68.8%) ·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 위축에 따른 이차전지 국내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의료 확대로 첨단의료기기 수입 증가 · 해외 고가신약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 안전성 및 제조품질 관리 이슈에 따라 유동적 · 고환율·고물가 원부자재 구매비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료기기 전 분야의 수요 확대로 수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표 2-10〉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77,383 (11.8)	47,274 (30.9)	44,953 (9.0)	92,227 (19.2)	46,453 (-1.7)	47,581 (5.8)	94,034 (2.0)
조선	18,178 (-20.9)	9,223 (11.9)	11,875 (19.5)	21,098 (16.1)	10,788 (17.0)	12,457 (4.9)	23,245 (10.2)
일반기계	51,099 (2.0)	26,656 (1.7)	26,042 (4.6)	52,698 (3.1)	26,469 (-0.7)	26,771 (2.8)	53,240 (1.0)
철강	38,448 (5.7)	18,512 (-10.8)	16,739 (-5.4)	35,251 (-8.3)	17,493 (-5.5)	18,252 (9.0)	35,746 (1.4)
정유	62,873 (64.9)	24,577 (-19.8)	28,144 (-12.7)	52,721 (-16.1)	26,477 (7.7)	26,756 (-4.9)	53,233 (1.0)
석유화학	54,316 (-1.4)	23,222 (-23.3)	22,055 (-8.3)	45,277 (-16.6)	23,055 (-0.7)	22,002 (-0.2)	45,057 (-0.5)
섬유	12,301 (-4.0)	5,616 (-13.2)	5,270 (-9.6)	10,886 (-11.5)	5,750 (2.4)	5,350 (1.5)	11,100 (2.0)
정보통신기기	34,866 (3.9)	11,389 (-39.5)	12,791 (-20.3)	24,180 (-30.6)	12,556 (10.2)	14,692 (14.9)	27,248 (12.7)
가전	8,028 (-7.4)	4,003 (-8.0)	3,928 (6.9)	7,931 (-1.2)	4,110 (2.7)	4,004 (1.9)	8,114 (2.3)
반도체	129,220 (1.0)	43,205 (-37.4)	52,938 (-12.1)	96,143 (-25.6)	52,202 (20.8)	59,180 (11.8)	111,382 (15.9)
디스플레이	21,149 (-1.1)	7,654 (-29.2)	10,887 (5.4)	18,541 (-12.3)	7,692 (0.5)	11,257 (3.4)	18,949 (2.2)
이차전지	9,981 (15.1)	5,033 (6.4)	4,454 (-15.2)	9,487 (-4.9)	4,419 (-12.2)	4,823 (8.3)	9,242 (-2.6)
바이오헬스	18,610 (-1.9)	6,948 (-37.3)	6,518 (-13.4)	13,466 (-27.6)	6,834 (-1.6)	7,248 (11.2)	14,082 (4.6)
13대 합계	536,452 (7.0) (78.5)	233,312 (-15.9) (76.0)	246,594 (-4.8) (75.9)	479,906 (-10.5) (76.0)	244,298 (4.7) (75.2)	260,373 (5.6) (76.1)	504,672 (5.2) (75.7)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1〉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2,300 (12.7)	1,421 (32.5)	1,291 (5.2)	2,713 (17.9)	1,297 (-8.8)	1,350 (4.6)	2,647 (-2.4)
조선 (만 CGT)	651 (-25.1)	392 (9.5)	374 (27.6)	766 (17.7)	365 (-6.9)	345 (-7.9)	710 (-7.3)
일반기계 (십억 원)	66,389 (15.9)	34,520 (6.9)	34,661 (1.6)	69,181 (4.2)	35,019 (1.4)	34,481 (-0.5)	69,500 (0.5)
철강 (천 톤)	25,680 (-5.3)	13,517 (2.8)	13,534 (8.0)	27,051 (5.3)	13,706 (1.4)	13,616 (0.6)	27,322 (1.0)
정유 (십만 배럴)	4,970 (11.3)	2,422 (3.6)	2,507 (-4.7)	4,929 (-0.8)	2,446 (1.0)	2,561 (2.2)	5,007 (1.6)
석유화학 (천 톤)	36,883 (-4.1)	17,996 (-5.9)	18,081 (1.8)	36,077 (-2.2)	18,252 (1.4)	18,069 (-0.1)	36,321 (0.7)
섬유 (십억 원)	16,410 (12.0)	7,274 (-9.2)	7,016 (-16.5)	14,290 (-12.9)	7,609 (4.6)	6,892 (-1.8)	14,501 (1.5)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8,492 (26.4)	14,753 (-36.6)	17,000 (-32.6)	31,753 (-34.5)	16,615 (12.6)	18,965 (11.6)	35,580 (12.1)
가전 (십억 원)	106,830 (7.7)	5,186 (-3.7)	5,212 (-1.6)	10,398 (-2.7)	5,350 (3.2)	5,105 (-2.1)	10,455 (0.5)
반도체 (십억 원)	172,175 (17.4)	55,756 (-34.7)	64,494 (-25.7)	120,250 (-30.2)	69,079 (23.9)	76,242 (18.2)	145,321 (20.8)
디스플레이 (십억 원)	27,282 (11.1)	9,914 (-25.7)	14,492 (4.0)	24,406 (-10.5)	10,179 (2.7)	14,503 (0.1)	24,682 (1.1)
이차전지 (십억 원)	13419 (35.3)	6,519 (11.3)	5,929 (-21.6)	12,448 (-7.2)	5,848 (-10.3)	6,213 (4.8)	12,061 (-3.1)
바이오헬스 (십억 원)	24,563 (9.2)	9,000 (-34.4)	8,677 (-20.0)	17,676 (-28.0)	9,043 (0.5)	9,337 (7.6)	18,381 (4.0)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2〉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1,686 (-2.3)	894 (10.7)	820 (-6.7)	1,714 (1.6)	830 (-7.1)	850 (3.6)	1,680 (-2.0)
조선 (만 CGT)	139 (-35.6)	74 (-3.9)	95 (53.2)	169 (21.6)	164 (121.6)	147 (54.7)	311 (84.0)
일반기계 (십억 원)	112,067 (-2.1)	50,136 (-6.0)	48,426 (-17.5)	98,561 (-12.1)	47,018 (-6.2)	48,236 (-0.4)	95,254 (-3.4)
철강 (천 톤)	51,297 (-8.5)	28,262 (1.9)	24,779 (5.2)	53,041 (3.4)	28,092 (-0.6)	25,267 (2.0)	53,360 (0.6)
정유 (십만 배럴)	11,140 (0.4)	5,470 (-2.2)	5,648 (1.8)	11,118 (-0.2)	5,667 (3.6)	5,617 (-0.5)	11,284 (1.5)
석유화학 (천 톤)	10,955 (-3.5)	5,235 (-10.1)	5,228 (1.9)	10,463 (-4.5)	5,287 (1.0)	5,283 (1.1)	10,570 (1.0)
석유 (십억 원)	64,020 (2.5)	34,410 (15.3)	30,934 (-9.5)	65,344 (2.1)	33,457 (-2.8)	31,403 (1.5)	64,859 (-0.7)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7,284 (-6.3)	27,266 (11.6)	24,292 (6.3)	51,558 (9.0)	28,142 (3.2)	26,194 (7.8)	54,336 (5.4)
가전 (십억 원)	30,584 (-3.1)	14,670 (-7.9)	14,609 (-0.3)	29,279 (-4.3)	14,778 (0.7)	14,762 (1.1)	29,540 (0.9)
반도체 (십억 원)	69,568 (10.0)	31,791 (-3.2)	30,379 (-17.3)	62,170 (-10.6)	32,672 (2.8)	35,316 (16.3)	67,989 (9.4)
디스플레이 (십억 원)	30,449 (-16.2)	12,734 (-18.7)	11,893 (-19.5)	24,627 (-19.1)	13,127 (3.1)	12,881 (8.3)	26,007 (5.6)
이차전지 (십억 원)	6,700 (34.4)	5,855 (95.1)	5,453 (47.4)	11,308 (68.8)	6,099 (4.2)	5,584 (2.4)	11,683 (3.3)
바이오헬스 (십억 원)	45,484 (41.1)	24,091 (24.0)	27,151 (4.2)	51,242 (12.7)	28,043 (16.4)	28,701 (5.7)	56,744 (10.7)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3〉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3,757 (8.5)	2,198 (23.5)	1,931 (-2.4)	4,129 (9.9)	1,982 (-9.8)	2,050 (6.1)	4,032 (-2.3)
조선 (만 CGT)	782 (-25.7)	461 (7.2)	464 (31.8)	925 (18.3)	516 (11.9)	482 (3.9)	998 (7.9)
일반기계 (십억 원)	137,253 (1.1)	64,197 (-3.1)	63,780 (-10.2)	127,977 (-6.8)	62,913 (-2.0)	63,717 (-0.1)	126,629 (-1.1)
철강 (천 톤)	67,918 (-7.8)	36,511 (0.9)	33,581 (5.8)	70,092 (3.2)	36,550 (0.1)	34,173 (1.8)	70,723 (0.9)
정유 (십만 배럴)	12,440 (6.9)	6,111 (0.4)	6,149 (-3.2)	12,260 (-1.4)	6,168 (0.9)	6,317 (2.7)	12,485 (1.8)
석유화학 (천 톤)	22,115 (-1.8)	10,654 (-10.1)	10,871 (5.9)	21,525 (-2.7)	10,765 (1.0)	10,892 (0.2)	21,657 (0.6)
석유 (십억 원)	53,641 (-4.5)	30,084 (14.1)	24,810 (-9.0)	54,894 (2.3)	29,050 (-3.4)	25,090 (1.1)	54,140 (-1.4)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0,626 (-1.9)	23,696 (-13.5)	23,083 (-0.6)	46,779 (-7.6)	24,766 (4.5)	25,394 (10.0)	50,160 (7.2)
가전 (십억 원)	29,862 (-4.3)	14,507 (-8.0)	14,668 (4.1)	29,175 (-2.3)	14,609 (0.7)	14,362 (-2.1)	28,971 (-0.7)
반도체 (십억 원)	141,256 (1.2)	47,841 (-35.5)	55,231 (-17.7)	103,072 (-27.0)	56,897 (18.9)	64,251 (16.3)	121,148 (17.5)
디스플레이 (십억 원)	52,890 (-8.1)	20,507 (-22.4)	23,854 (-9.8)	44,361 (-16.1)	21,081 (2.8)	24,856 (4.2)	45,937 (3.6)
이차전지 (십억 원)	11,872 (10.9)	6,132 (6.2)	5,781 (-5.2)	11,913 (0.3)	5,844 (-4.7)	6,203 (7.3)	12,047 (1.1)
바이오헬스 (십억 원)	39,031 (14.4)	19,149 (5.7)	20,735 (-0.9)	39,884 (2.2)	20,559 (7.4)	21,179 (2.1)	41,738 (4.6)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4〉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22,133 (8.0)	12,651 (21.2)	10,386 (-11.2)	23,037 (4.1)	11,483 (-9.2)	11,804 (13.7)	23,286 (1.1)
조선	3,165 (-13.2)	1,195 (-26.9)	1,319 (-13.8)	2,514 (-20.6)	1,262 (5.6)	1,364 (3.4)	2,626 (4.5)
일반기계	31,662 (0.7)	15,798 (0.3)	14,505 (-8.8)	30,303 (-4.3)	14,455 (-8.5)	14,752 (1.7)	29,207 (-3.6)
철강	24,947 (2.0)	12,261 (-11.2)	10,152 (-8.8)	22,413 (-10.2)	11,763 (-4.1)	10,766 (6.0)	22,529 (0.5)
정유	26,709 (10.9)	11,140 (-21.4)	13,103 (4.6)	24,243 (-9.2)	13,384 (20.1)	12,361 (-5.7)	25,744 (6.2)
석유화학	14,317 (-2.3)	6,416 (-18.7)	6,068 (-5.6)	12,484 (-12.8)	6,392 (-0.4)	6,176 (1.8)	12,568 (0.7)
섬유	19,901 (8.8)	8,956 (-3.6)	9,870 (-7.0)	18,826 (-5.4)	9,080 (1.4)	10,250 (3.9)	19,330 (2.7)
정보통신기기	32,464 (-0.3)	14,146 (-13.8)	13,673 (-14.8)	27,819 (-14.3)	15,107 (6.8)	15,339 (12.2)	30,446 (9.4)
가전	8,547 (-5.1)	4,129 (-7.8)	3,883 (-4.5)	8,012 (-6.3)	4,240 (2.7)	4,317 (11.2)	8,557 (6.8)
반도체	74,763 (21.8)	30,768 (-13.7)	32,539 (-16.8)	63,307 (-15.3)	33,896 (10.2)	36,720 (12.9)	70,616 (11.5)
디스플레이	3,767 (30.7)	1,653 (-20.8)	1,901 (13.2)	3,554 (-5.7)	1,681 (1.7)	1,962 (3.2)	3,643 (2.5)
이차전지	6,089 (66.1)	4,819 (93.5)	4,208 (17.0)	9,027 (48.3)	4,612 (-4.3)	4,343 (3.2)	8,955 (-0.8)
바이오헬스	23,237 (33.7)	10,763 (-11.4)	11,339 (2.2)	22,102 (-4.9)	12,489 (16.0)	13,086 (15.4)	25,575 (15.7)
13대 합계	291,701 (9.5) 〈39.9〉	134,695 (-7.9) 〈40.4〉	132,946 (-8.6) 〈42.6〉	267,641 (-8.2) 〈41.5〉	139,844 (3.8) 〈44.2〉	143,240 (7.7) 〈44.2〉	283,081 (5.8) 〈44.2〉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5〉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2022	2023		2024		단위: %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302 (1.5)	134 (-3.0)	144 (-11.9)	278 (-7.8)	145 (7.8)	150 (4.5)	295 (6.1)
조선 (만 CGT)	8 (-77.8)	5 (0.0)	5 (66.7)	10 (25.0)	13 (160.0)	10 (100.0)	23 (130.0)
일반기계 (십억 원)	41,204 (14.6)	20,458 (5.4)	19,306 (-11.4)	39,765 (-3.5)	19,124 (-6.5)	19,000 (-1.6)	38,125 (-4.1)
철강 (천 톤)	9,058 (-4.5)	5,268 (11.7)	4,733 (9.0)	10,001 (10.4)	5,249 (-0.4)	4,710 (-0.5)	9,958 (-0.4)
정유 (십만 배럴)	3,671 (-6.4)	1,781 (-3.5)	2,006 (9.9)	3,786 (3.2)	1,944 (9.2)	1,861 (-7.2)	3,805 (0.5)
석유화학 (천 톤)	8,988 (-12.1)	4,650 (-2.7)	4,582 (8.9)	9,232 (2.7)	4,748 (2.1)	4,690 (2.4)	9,438 (2.2)
섬유 (십억 원)	26,789 (27.8)	11,601 (0.9)	13,140 (-14.1)	24,741 (-7.6)	12,016 (3.6)	13,205 (0.5)	25,221 (1.9)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5,150 (21.3)	18,323 (-9.8)	18,208 (-26.7)	36,531 (-19.1)	19,991 (9.1)	19,765 (8.6)	39,756 (8.8)
가전 (십억 원)	11,405 (10.9)	5,349 (-3.6)	5,153 (-12.1)	10,502 (-7.8)	5,519 (3.2)	5,504 (6.8)	11,023 (5.0)
반도체 (십억 원)	100,487 (42.9)	39,706 (-10.0)	39,642 (-29.7)	79,348 (-21.0)	44,854 (13.0)	47,307 (19.3)	92,161 (16.1)
디스플레이 (십억 원)	4,841 (46.4)	2,141 (-16.9)	2,530 (11.7)	4,672 (-3.5)	2,225 (3.9)	2,527 (-0.1)	4,752 (1.7)
이차전지 (십억 원)	8,247 (96.8)	6,242 (102.5)	5,601 (8.4)	11,843 (43.6)	6,103 (-2.2)	5,595 (-0.1)	11,698 (-1.2)
바이오헬스 (십억 원)	31,016 (50.5)	13,941 (-7.2)	15,093 (-5.6)	29,034 (-6.4)	16,527 (18.5)	16,859 (11.7)	33,386 (15.0)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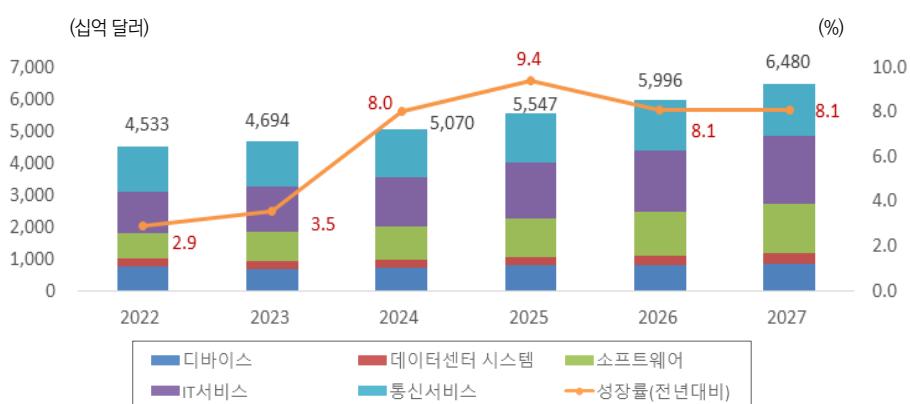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참고〉 글로벌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동향과 전망

□ 2024년 세계 IT 시장은 생성형 AI 확산, IT기기 수요 개선으로 성장 전망

- 반도체의 주요 수요분야인 세계 IT 시장은 2024년 생성형 AI(챗GPT 등) 수요가 급증하고, 부진했던 IT기기 수요 회복과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등에 힘입어 금년 대비 8% 성장이 전망
- 세계 IT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시장은 2023년 약 10% 감소가 예상되는데, 2024년에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약 4.8% 증가 전환이 예상
 -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각각 10.4%, 13.8%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세계 IT 시장 전망



자료: Gartner(2023. 9), Gartner Market Databook, 3Q23.

주: 지출 기준.

- 특히 생성형 AI 수요가 확산되고 AI 처리 데이터량이 급증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방대한 데이터량을 처리해야 하는 생성형 AI 수요 확대로 GPU용 메모리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로의 변경 수요가 증가할 전망

□ 2024년 세계 서버(Server) 시장은 AI 서버를 중심으로 10.8% 성장이 전망되며, 이에 따라 SSD 시장도 높은 성장이 예상

- 고금리 등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세계 서버 시장(매출 기준)은 2024년에 10.8% 성장하고, 출하량 기준으로는 6.6% 증가 전환이 전망
 - 2023년 현재 AI 서버 비중은 10% 이하로,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서버 시장이 40% 이상 고성장하고, 관련 반도체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세계 D램 시장에서 모바일용 D램이 2022년 기준 약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서버용 D램이 약 34% 수준이며, 낸드플래시 시장은 모바일용이 약 40%, 서버용이 30% 정도를 차지

세계 서버 시장 전망



자료: Gartner(2023. 9), Forecast : Server Shipments, 2021~2027.

- AI 적용 확산과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서버 수요 확대, 스마트폰, 노트북 등 IT기기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2024년 세계 SSD 시장(출하량 기준)은 1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매출액 기준 2023년 세계 SSD 시장은 -7.2%를 기록할 전망이나, 글로벌 제조사들의 감산과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고 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2024년에는 85.1% 큰 폭 증가가 예상

- 2023년 12월에 인텔의 데이터센터·서버용 5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스가 출시될 예정으로, 동 신제품으로의 교체수요도 증가할 전망
- 지역별로 가장 시장규모가 큰 북미 시장이 2024년 7.3% 성장하고, 중국이 17.8%, 유럽이 9.9%, 아시아·태평양이 10.7% 성장할 전망
-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일반 서버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서, 기업용 SSD 시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

세계 SSD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천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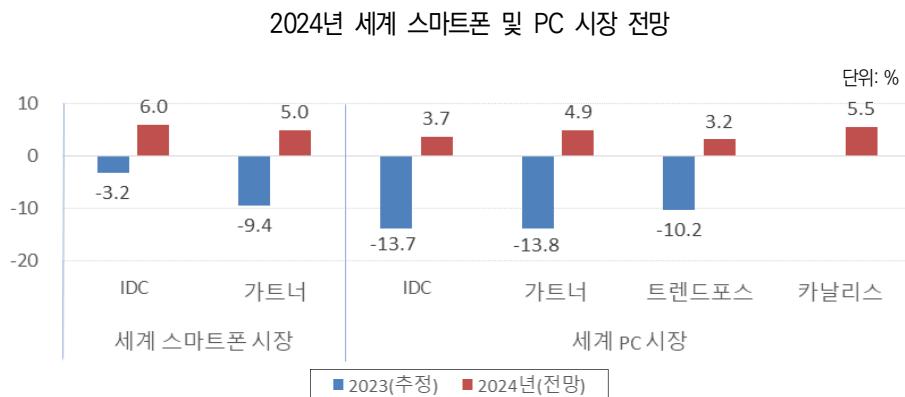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CAGR (2022~2027)
출하량	458,982 (18.5)	432,069 (-5.9)	430,729 (-0.3)	483,545 (12.3)	523,623 (8.3)	560,651 (7.1)	586,560 (4.6)	6.3
매출액	40,845 (25.1)	38,815 (-5.0)	24,367 (-37.2)	45,103 (85.1)	58,665 (30.1)	70,457 (20.1)	72,467 (2.9)	13.3

자료: Gartner(202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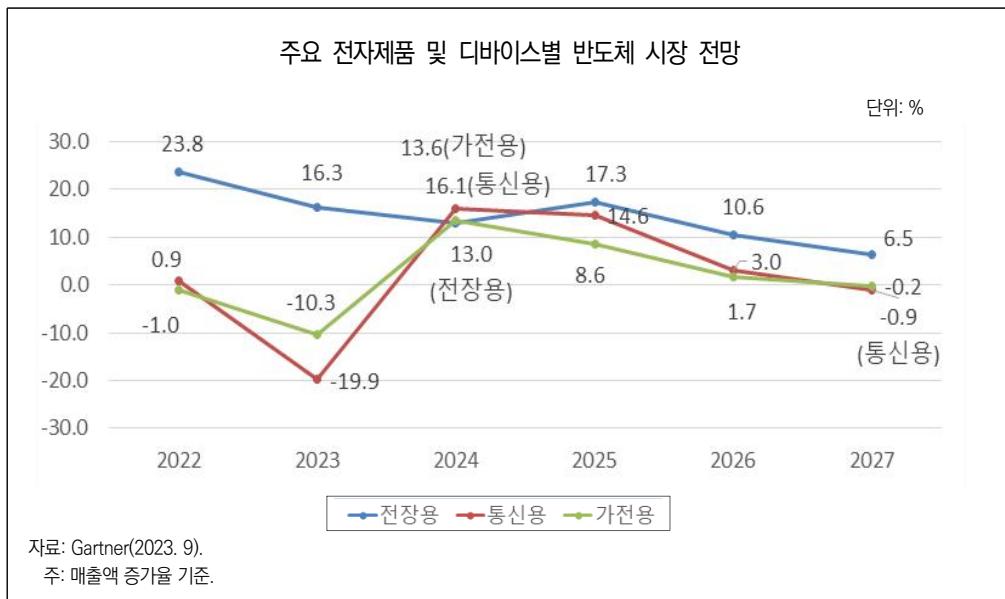
□ 세계 스마트폰 및 PC 시장도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에 기여 전망

- 2023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2024년에는 프리미엄폰과 폴더블폰 수요에 힘입어 금년 대비 약 5~6% 증가할 전망
 - 2024년에는 금년 대비 세계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신규 5G 스마트폰 교체수요와 폴더블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AI 지원(생성형 AI 기능 탑재) 스마트폰과 고급형 및 보급형 폴더블폰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폴더블폰 비중은 2023년 약 1.5%로 작지만 2024년에는 2.6%로 크게 증가할 전망(카운터포인트 리서치, 2023. 10)

- 그러나 2024년 스마트폰 시장은 세계 경기 회복 속도가 관건이며 기술·제품의 상향 평준화에 따른 교체주기 연장 등의 변수 요인이 상존



- 세계 PC 시장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3년 10~13% 정도의 역 성장이 예상되지만, 2024년은 세계 PC 시장에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게임용 및 고급형 PC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복될 전망
 - 특히 AI 반도체가 탑재된 AI PC 시장이 성장하고, 인텔의 신규 CPU(메테오레이크)로의 교체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윈도11 교체수요(2025년 10월 윈도 10 지원 종료) 등이 세계 PC 시장 회복에 기여할 전망
- 한편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가전제품의 스마트화 및 탑재 반도체 수의 증가는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4년 전장용 반도체 시장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소폭 감소한 13% 증가를 기록하고, 통신용 및 가전용 반도체 시장은 2023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각각 16.1%, 13.6% 성장할 전망



연구진

거시 경제	총괄 및 국내경제	박성근 연구위원	(044) 287-3172
		강두용 선임연구위원	(044) 287-3205
	세계경제	민성환 선임연구위원	(044) 287-3127
		이원복 부연구위원	(044) 287-3126
	유가 및 환율	이소라 부연구위원	(044) 287-3711
		강성우 연구원	(044) 287-3677
	소비	김현석 부연구위원	(044) 287-3670
	투자	김태훈 부연구위원	(044) 287-3627
	수출	김정현 전문연구원	(044) 287-3918
		한정민 연구원	(044) 287-3291
	총괄	이재윤 연구위원	(044) 287-3829
	자동차	김경유 선임연구위원	(044) 287-3125
	조선	이은창 연구위원	(044) 287-3198
	일반기계	박상수 연구위원	(044) 287-3830
	철강	이고은 전문연구원	(044) 287-3177
13대 주력 산업	정유	최동원 부연구위원	(044) 287-3144
	석유화학	조용원 연구위원	(044) 287-3079
	섬유	이임자 연구위원	(044) 287-3108
	정보통신기기	김종기 선임연구위원	(044) 287-3106
	가전	심우중 전문연구원	(044) 287-3024
	반도체	김양팽 전문연구원	(044) 287-3282
	디스플레이	남상욱 부연구위원	(044) 287-3190
	이차전지	황경인 부연구위원	(044) 287-3081
	바이오헬스	정지은 부연구위원	(044) 287-3293